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7, pp.1-52  
<https://doi.org/10.29212/mh.2018..107.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6·25전쟁 중 개신교의 군내 활동과 정신전력

: 군목과 신앙 군인을 중심으로<sup>1)</sup>

윤은석\*

1. 들어가는 말
2. 개신교의 신앙 전력 활동
3. 결과 : 개신교는 무형의 정신전력
4. 결 론

### 1. 들어가는 말

군에서는 무형전력과 정신전력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무형전력은 무기  
와 물자에 대한 숙달을 의미하는 기술전력, 승리를 위한 전력 전술을  
위미하는 운용전력, 전투 의지력을 의미하는 정신전력으로 나누어진다.

---

\*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위원.

1) 이 논문은 2018년도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신진연구자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즉, 정신전력은 무형전력의 하위 개념으로 “엄정한 군기, 충천된 사기, 공고화된 단결”을 중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의지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sup>2)</sup>

또한 군에서는 신앙전력화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신앙을 군의 모든 활동에 연계시켜서 부대의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3)</sup> 한경직 목사의 표현을 살펴보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반공정신과 사기 충만한 군인이 될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신무장은 기독교 신앙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앙을 통하여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리고 죽어도 사는 영생의 사생관이 확립될 때에 자연스럽게 용감한 군인이 됩니다”라고 하였다.<sup>4)</sup> 즉, 신앙전력화는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생관 중심의 신앙을 정신전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정신전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신전력이 군복무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다.<sup>5)</sup> 정신전력이 군인 개인과 조직의 보안에 어떤 영향관계를 갖는지를 설문을 통해 조사한 연구도 있다.<sup>6)</sup> 정신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지휘관의 리더십과 장병들의 세계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중심으로 접근한 연구도 있다.<sup>7)</sup> 정신전력이 전쟁의 승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00명의 코더에게 과거 전사(戰史) 자료를 읽고 9개의 정신전력의 요소를 평가하게 하여 과거 전쟁에서 나타난 정신전력과 그에 따른 승패를 분석한 이준희의 연구도 있다.<sup>8)</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군종장교와 정신전력의 상관관계를

2) 박일, 고영건, “정신전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 (2012. 2): 106-107.

3) 백창현, 『한국군목회』, (서울: 한국군목회, 2015), 47.

4) 김병희 편저, 『한경직목사』, (서울: 규장문화사, 1982), 98.

5) 박일, 고영건, “정신전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112.

6) 박재곤, 오영균, “정신전력이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군 조직특성과 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2016. 9): 78.

7) 전병규, “한국군의 정신전력 결정요인,”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09), 2-3.

밝힌 것은 아니다.

군종장교와 정신전력 사이의 관계도 분석한 것이 있다. 최승균은 320명의 부대 장병들을 설문조사하여 군종활동이 군인의 정신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sup>9)</sup> 그러나 이 연구는 1995년 어간에 수행된 연구로 6·25 전쟁을 포함하지 않는다. 6·25 전쟁 당시 신앙과 정신전력에 대해 간헐적인 언급을 한 연구가 있다. 김기태는 6·25 전쟁 당시 군목과 정신전력에 대한 정일권 참모총장의 언급을 기록하며 개신교를 통한 정신전력을 짧게 설명하였다.<sup>10)</sup> 강인철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6·25 전쟁 당시 군목의 신앙전력화와 연관 있는 기록 두 개를 소개하였다.<sup>11)</sup>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기록의 소개일 뿐, 군목과 정신전력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다. 6·25 전쟁 당시 군목의 활동을 소개한 것도 있다. 윤선자가 천주교의 군목활동을 언급하였다면, 허명섭과 박보경은 개신교의 군목활동을 언급하였다.<sup>12)</sup> 그러나 아직까지 6·25 전쟁 당시 한국 개신교 군목의 활동을 정신전력과 연계해서 연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6·25 전쟁 당시 군목과 신앙군인들의 활동을 통한 군 정신전력의 향상 여부를 추정하는 것이다. 오늘날 정신전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존재한다.<sup>13)</sup> 그러나 이것을 6·25 전쟁에 적용하

8) 이준희, “정신전력 인식 지수에 의한 전쟁승패 요인분석,” 『OUGHTOPIA』 26 (2011. 8): 100-101. 본 연구 107쪽에 보면, 정신전력의 요소에 신앙도 포함되어 있다.

9) 崔承均, “軍宗活動이 將兵들의 精神戰力에 미치는 影響,”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1995), 57-58.

10) 김기태, “한국 전쟁과 군선교,” 『선교와 신학』 26 (2010. 8): 47-48.

11) 강인철, 『종교와 군대』 (서울: 현실문화연구, 2017), 134-135.

12) 윤선자, “6·25 한국전쟁과 군종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14 (2001. 2): 157-158; 허명섭, 『해방 이후 한국교회의 재형성 1945-1960』 (경기도: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2009), 294-308. 박보경,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한국 교회의 역할,” 『선교와 신학』 26 (2010. 8): 118-119.

13) 박경수, 황승조, “군 부대 정신전력 비교평가를 위한 AHP 모델,”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2. 11): 192-197.

는 것은 설문 대상자인 당시의 군인들이 대부분 사망하였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위에서 연구자가 언급한 이준희의 연구는 과거의 전쟁의 정신전력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전쟁에 대한 자료를 읽은 100명의 사람들의 주관적인 정신전력 평가에 기초한 것이었다. 냉정하게 6·25 전쟁 당시 한국 군인들의 정신전력에 개신교가 군목과 신앙군인들을 중심으로 기여한 바를 현대의 측정 방법에 의해 재현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당시 전선에서 싸우던 군인들의 정신전력에 개신교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언급들과 사례들과 정황들을 열거하여 추정의 형태로 정신전력 향상 여부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이다. 당시 개신교와 6·25 전쟁의 연관성에 대한 많은 자료는 개신교 신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기독공보》는 상당히 많은 전쟁과 개신교에 대한 기사를 썼다. 또한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의 수기도 존재한다. 6·25 이후의 개신교 통사(通史)에서도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중심으로 군목과 신앙군인의 활동과 한국 군인의 정신전력의 연관성을 고찰해 보도록 할 것이다.

용어의 정의와 시기의 범위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벌어진 전쟁에 대해 학계에서는 크게 “6·25 전쟁”과 “한국전쟁”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김명섭 교수에 의하면, “한국전쟁”을 사용할 경우 6·25 전쟁 발발 전에 일어난 간헐적인 군사 충돌의 연장선에서 3년간의 전쟁을 이해할 수 있고, 이는 북한의 기습적 남침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다.<sup>14)</sup>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6·25 전쟁이라고 표현할 것이다. 군승, 군중, 군목에 대한 용어도 분명히 정의하고자

14)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57-59. “6·25 전쟁”과 “한국전쟁”의 용어 사용의 실례에 대해서는 김명섭, “전쟁명명의 정치학 “아시아-태평양전쟁”과 “6·25전쟁”,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0 (2009. 2): 74-75. 각주 5를 참고하라.

한다. 시행 초기 군승과로 불렸으나 1951년 4월 14일에 군목과로 변경되었다.<sup>15)</sup> 오늘날 군종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군 사제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개신교와 천주교만 있었고, 명칭 역시 군종목사, 군목이라고 불렸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군목, 군목제도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이다. 연구의 시기는 1950년 6월 25일 전쟁의 발발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이다. 경우에 따라 이 시기를 넘어선 자료들도 사용되기는 할 것이나, 대부분 이 기간 안에 있는 자료들이 본 연구에서 활용될 것이다. 참고로 개신교 신문의 경우 1952년부터 발견된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자료들은 1952년부터 1953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민간 개신교회의 군위문활동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교회의 활동도 다룰 경우 본 연구가 지나치게 많아질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군목과 신앙군인, 군인 교회의 활동으로 제한할 것이다.<sup>16)</sup>

## 2. 개신교의 신앙 전력 활동

### 가. 군목제도의 설립과 활동 개요

1948년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되었고,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신앙전력화의 차원에서 군목제도 설립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1950년 전쟁 당시 미군에 복무하던 한국인 카투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군목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미국 감리교 선교사 쇼우(William E. Shaw, 서위렴) 목사, 천주교 캐롤 안(George

15) 백창현, 『한국군목회』, 62.

16) 박동찬 편저, 『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전쟁의 개요를 알고자 하는 독자가 있다면, 이 책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라.

Carroll, 安) 주교, 그리고 미 극동부 사령부 군종과장 이반 베넷(Ivan L. Bennett) 목사가” 군목제도 창설을 위해 협력 활동하였다. 이들의 활동과 한경직, 류형기 목사, 캐롤 안 주교 등의 민간 교회들의 활동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군인들의 신앙 무장을 긍정하게 되었으나 재정 부족을 근거로 난색을 표시하였다. 이에 군에서 보급품(피복과 식량 등)을 담당하고 군목의 경비는 각 종단에서 담당하기로 하고 문관신분으로 군목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950년 12월 21일,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이승만 대통령이 “비서실 지시 제29호”를 국방부에 하달하면서 군목제도가 시작되었다. 이후 육본 인사명령 제31호에 따라 1951년 2월 7일에 육군본부 인사국에 군승과가 설치되었다.<sup>17)</sup>

해군의 경우 더 이른 시기에 군목이 활동하였다. 정달빈 목사는 손원일 해군 총참모장의 요청으로 정훈장교로 임관하여 1949년 1월에 정훈감실에 교화과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군목 활동을 하였다. 그는 동료 목사들을 설득하여 문관 신분으로 정훈감실에 임관하게 하여 공식적인 군목제도 창설에 기여하였다. 이 교화과는 해군 군목과의 비공식적인 출발이라 할 수 있다. 해군본부의 군목실은 1950년 12월 6일에 설치되었다. 공군은 1952년 3월 30일에 조인숙 목사와 이삼복 신부가 공군 군목으로 임관하면서 군목제도가 시작되었다.<sup>18)</sup> 공군본부에 군목실이 생긴 것은 1953년 4월 3일이었다. 초대 실장은 최성곤 중령이었다.<sup>19)</sup>

1954년 4월까지 군목은 개신교에 163명(장로교 153명, 감리교 67명, 성결교 37명, 구세군 3명, 기타 3명), 천주교 35명으로 총 298명이었다.<sup>20)</sup> 여기에는 정식군목과 보조군목이 있었다. 1952년 4월 1일부

17) 백창현, 『한국군목회』, 60-62; “베넷小長,” 《기독교공보》, 1952년 10월 20일, 1. 군목제도 창설에 베넷 군목의 역할은 이 기사를 참고하라.

18) 백창현, 『한국군목회』, 62-65.

19) “空軍本部에 軍牧室設置,” 《동아일보》, 1953년 4월 3일, 2.

20) 허명섭, 『해방 이후 한국교회의 재형성 1945-1960』, 303.

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정식군목이라 하여 군모에 백색 십자가를 달았고, 신학교만 졸업한 사람은 보조군목이라 하여 군모에 청색 십자가를 달았다.<sup>21)</sup> 휴전 이후에 이들의 군사 훈련 기간은 2주였다.<sup>22)</sup> 이전에 군사훈련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부터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1952년 6월 16일 이전에는 교회에서 군목들의 재정을 다 지원하였다. 1952년 6월 16일 군인명 제 58호에 의해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문관 신분이 되었다.<sup>23)</sup> 유급문관으로 선발된 후에도 교회는 “선교부에서 전시위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군목을 지원하였다. 각 교과의 교회들은 군목주일을 제정하여 헌금하고 이를 군목 사업비로 제공하였는데, 장로교회의 경우 1953년 11월 첫째 주 일요일을 군목 주일로 제정하였다.<sup>24)</sup> 제주도로 피난을 갔던 함정옥 장로는 군목 한 명의 생활비를 담당하였고, 조남옥, 한오권, 김관호, 김신주 집사는 군목 두 명을 파견하였다. 모슬포 피난민 교회도 군목 한 명을 파견하였다.<sup>25)</sup> 유급문관이 되어도 생활비가 넉넉지 않아 교회의 후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후원에 육군 총참모장은 감사장을 보냈다.<sup>26)</sup>

21) 백창현, 『한국군목회』, 109; “國軍救靈戰線에나설,” 《기독교보》, 1953년 3월 2일, 1. 1953년 3월 경 군목을 모집하는 기사이다. 당시 정식군목과 보조군목으로 나누어서 선발하였다. 정식군목의 경우 중학교와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아야 했다. 교단장의 추천과 한국기독교군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구비서류도 완료해야 했다. 또한 연령은 만 25-45세까지였다. 보조군목의 경우 안수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 나머지는 정식군목과 동일했다. 즉 보조군목은 안수를 받지 않은 신학교 졸업생이었다. 시험은 논문과 사회와 상식을 보았다.

22) “陸軍第五期軍牧訓練中,” 《기독교보》, 1953년 12월 28일, 1. 선발된 군목 00명은 1953년 12월 7일부터 2주간 육군 제297부대에서 군목교육이 실시되었다.

23) 백창현, 『한국군목회』, 111.

24) “軍牧主日앞두고,” 《기독교보》, 1953년 10월 19일, 2.

25) “十一條로軍門에敎役者派遣,” 《기독교보》, 1953년 10월 12일, 2.

26) “各敎團軍牧輔助實態,” 《기독교보》, 1953년 9월 14일, 1. “陸軍本部[육군본부]에서는 軍牧制度創設以來[군목제도창설이래] 各[각]교團[단]에서 派遣[파견]된 軍牧[군목]에 對[대]하여 各[각]교團[단]이 直接[직접] 그 生活費[생활비]를 負擔

군목은 전선을 순회하는 일도 담당했다. 군목들이 합창단을 조직하여 전선을 순회하기도 하였다.<sup>27)</sup> 전선에서 근무하던 군목도 있었다. 채규락 군목은 1952년 12월에 문관 3급 8호로 육군 군목에 임관하여 1953년 6월 30일 수도사단 1연대에 배속되었다. 휴전을 앞두고 공산군과 접전이 계속되던 때에 공산군들의 침입을 받게 되었고, 간신히 피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sup>28)</sup>

전선을 넘나드는 왕성한 활동은 종종 사고로 이어졌다. 최초의 군목 전사자는 1952년 2월 22일 오후 8시에 순직한 윤광섭 군목이었다. 그는 어떤 용무 차 “連絡[연락]을 가다가 自動車事故[자동차 사고]로 전사하였”다.<sup>29)</sup> 김관수 군목도 순직하여 1952년 10월 12일에 대은감리교회에서 추도예배가 거행되었다.<sup>30)</sup> 박춘심 군목(육군제3사단)은 1953년 1월에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2월 4일에 사망하였다. 그는 후방에서 근무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계속 전방에 남아 근무하다가 외상이 내부로 감염되어 순직하였다.<sup>31)</sup> 1956년까지 군목은 총 6명이 순직하였다.<sup>32)</sup>

---

[부담]할 뿐 아니라 수많은 종교 書籍[서적]과 粉乳[분유] 衣類 等[의류 등]을 기贈[증]하여 준데 對[대]하여 國軍[국군]의 士氣昂揚[사기양양]에 많은 功績[공적]이 있었음을 높이 찬揚[양]하고 있으며 이에 對[대]한 具體的[구체적]인 統計[통계]를 作成[작성]하여 總參謀長[총참모장]의 感謝狀[감사장]을 수여키로 되었다 한다.”

27) “軍牧合唱團音樂예배,” 《기독교보》, 1953년 1월 12일, 1. “육군군목단에서는 지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선각지로 순회하다 돌아온 군목합창단이”

28) 백창현, 『한국군목회』, 314.

29) “弔!尹光燮從軍牧師金化全線서殉職,” 《기독교보》, 1952년 3월 3일, 2; 백창현, 『한국군목회』, 85.

30) “故金寬秀軍牧追悼禮拜,” 《기독교보》, 1952년 10월 20일, 1.

31) “朴春心軍牧殉職,” 《기독교보》, 1953년 4월 6일, 1; 백창현, 『한국군목회』, 520. 박춘심은 1951년 10월 1일 문관 2급 6호로 임관한 장로교 군목이었다.

32) 나사행, “한국전쟁은 군목을 불렀다,” 『韓國基督教宣敎100周年紀念韓國說敎大全集』, 한국설교대전집출판위원회편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79), 166.



## 나. 군목과 신앙전력: 설교, 예배, 세례

군목의 목적 중 하나는 신앙을 중심으로 군인들의 정신전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군목을 통한 정신전력은 반공정신함양과 신앙을 통한 사기 진작이었다. 장로교 총회 군목 위원장 등의 명의로 각 장로교회에 발송한 통지문에는 멸공통일을 위한 신앙무장이라는 군목의 목적이나와 있다.<sup>33)</sup> 그에 따라 정신전력강화를 위한 군목 교육도 진행되었다. 1952년 “七月二十九日부터 八月二日까지 慶南울산[경남울산]에서 正式軍[정식군]목 00명이 第二回[제이회]째 軍목補充教育[군목보충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 2번째는 군 설교에 대한 것이었고, 3번째가 “軍人精神強化研究토議[군인정신강화연구토의], 4번째는 군인봉사에 대한 것이었다.<sup>34)</sup> 실제로 군목들은 신앙 장병의 신앙 지도와 불신자에게 신앙을 전함으로 “國軍將兵[국군장병]의 士氣昂揚[사기진작]에 \*作[작]을 피할 뿐 아니라 最前線[최전선]에까지 軍牧[군목]을 파견하여 戰傷[전상]자를 慰勞看護[위로간호]하”는 활동을 하였다.<sup>35)</sup> 나사행 군목도 “전선에서 쓰러지는 장병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절망에 빠진 장병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부름받아 군대에 들어온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sup>36)</sup>

군목들의 설교는 개신교 선교를 위한 것도 있었지만, 신앙 전력화를 위한 메시지도 있었다. 1952년부터 1953년 7월 27일(휴전)까지 개신교 신문에 나오는 설교 주제들을 분석하는 것은 군목들의 설교의 지향

33) “十一月첫主日是 軍牧主日,” 《기독공보》, 1952년 10월 20일, 1. “國軍將兵[국군장병]으로 滅共統一[멸공통일]의 偉勳[위훈]을 이룸에는 各樣[각양]의 條件[조건]이 要求[요구]되나 最大急務[최대급무]는 信仰武將[신앙무장]의 強化[강화]일 것이다 卽人生[즉인생]의 死生觀[사생관]과 來世觀[내세관]을 確立[확립]시켜 良心力[양심력]을 傾注[경주]하기 위해 지난 總會[총회]에서 軍목委員會[군목위원회]를 구성코 來十一月 첫 主日是 軍牧主日[군목주일]로 決定[결정]하였으니” 현대 한글에 맞추어 인용하였다. 앞으로 인용될 신문도 현대 한글에 맞추어 인용하겠다.

34) “軍當局의 積極協助 밑에,” 《기독공보》, 1952년 8월 11일, 1.

35) “國際的 聯關性 軍牧諮問委 遂組織,” 《기독공보》, 1952년 12월 8일, 1.

36) 나사행, “한국전쟁은 군목을 불렀다,” 166.

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먼저 신앙전력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설교들을 살펴보자. 1952년 4월 27일에 오천 여명이 해군사관학교 사격장에 운집하여 드린 군민연합예배에서 정달빈 해군본부군목 실장(중령)은 “조국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sup>37)</sup> 1952년 5월 4일 부산의 해병대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정달빈 군목의 설교 제목은 “소국의 위기”였다.<sup>38)</sup> 1952년 6월 8일 “중부전선 보병 제 5202 부대”에서 진중교회가 설립되었을 때에 박웅천 군목은 “오늘의 싸움은 무력보다 신앙”이라는 격려사를 하였다.<sup>39)</sup> 1952년 7월 첫 주에 중부 최전선에 진중교회가 설립될 때 신임 유(유영근으로 추정) 군목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의 남북전쟁과 조국”이었다.<sup>40)</sup> “육군제—00부대”에 군목부 창설예배를 드릴 때 박형순 군목은 “군인과 신앙”이라는 설교를 하였다.<sup>41)</sup> 1952년 7월 13일에 백령도에 군교회가 설립될 때, 전덕성 군목(대위)의 설교 제목은 “기독교와 공산주의란”이었다.<sup>42)</sup> 개신교 신문에 나오는 군목의 설교 제목들 중 총 6편이 신앙전력화와 관련이 있었다.

신앙전력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군목의 설교들도 살펴보자. 육군군의학교에서 1952년 2월 20일에 거행된 주일예배에서 김봉삼 군목이 한 설교 제목은 “우리의 생활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였다.<sup>43)</sup> 5105부대 군인교회가 설립되어 1953년 3월 15일에 헌당식을 할 때 이영백 군목은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는 설교를 하였다.<sup>44)</sup> 해군본부군목실 주최 해군참모총장과 참모부장 취임축하예배 시

37) “군·민연합대예배,” 《기독교공보》, 1952년 5월 5일, 2.

38) “해병대교회준공,” 《기독교공보》, 1952년 5월 12일, 2.

39) “진중교회감격,” 《기독교공보》, 1952년 6월 30일, 2.

40) “진중교회,” 《기독교공보》, 1952년 7월 28일, 2; 백창현, 『한국군목회』, 585.

41) “육군제百부대 군목부창설,” 《기독교공보》, 1952년 6월 16일, 2.

42) “해병대도서부대에 군인교회,” 《기독교공보》, 1952년 8월 11일, 2.

43) “20日主日禮拜,” 《기독교공보》, 1952년 2월 4일, 2. 백창현, 『한국군목회』, 520. 김봉삼은 1951년 10월 1일 임관했던 군목이다.

44) “軍人教會獻堂式盛大,” 《기독교공보》, 1953년 4월 13일, 1.

정달빈 군목의 설교 제목은 “SOS”였다.<sup>45)</sup> 해군본부교회에서 1953년 4월 2주차 세례식을 거행할 때 정달빈 군목은 “인생의 화학적 변화”라는 설교를 하였다.<sup>46)</sup> 손원일 해군참모장(중장)이 국방장관에 임명되어 해군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해군본부군인교회에서는 이임송별예배를 드렸다. 이 때 정달빈 군목은 “國防[국방]의 起草[기초]를 兵力[병력]과 經濟力[경제력]에 둘 것은 勿論[물론]이지만 더욱 重要[중요]한 것은 『참사랑』 이다라고 強調[강조]하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 原因[원인]이 義人[의인]이 없음에 起因[기인]한 것”이라고 설교하였다.<sup>47)</sup> 개신교 신문에 나오는 설교 제목 또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중 5개는 신앙전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절기 설교(성탄절, 부활절 등)나 상이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목의 설교는 그 독특성으로 인해 따로 살펴보아야 한다. 절기설교로는 1952년 12월 1일에 해군본부에서 있었던 반(반병섭으로 추정) 군목의 “크리스마스의 환희”라는 설교와<sup>48)</sup> 1952년 육군1801부대 군인교회의 성탄 축하예배 때 김세환 중위의 “크리스마스의 의의”가 있었다.<sup>49)</sup> 상이군인을 위한 설교로는 1952년 9월 28일 “제 十五육군병원 군인교회”에서 학습 및 세례식이 거행될 때 양세언 군목이 한 “새로운 건설자가 되라”라는 설교와<sup>50)</sup> 정달빈 해군군목이 해병대 내의 직업교도소 1회 수료식 때 상이군인들에게 한 “인생항해”라는 설교가 있었다.<sup>51)</sup> 총 4편의 설교는 대상과 시기의 독특성으로 인해 신앙전력화를 강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45) “海軍總參謀長參謀部長就任禮拜,” 《기독교보》, 1953년 7월 27일, 1.

46) “海軍教會聖禮式,” 《기독교보》, 1953년 5월 4일, 2.

47) “孫元一海軍中將國防長官就任,” 《기독교보》, 1953년 7월 13일, 1.

48) “海軍X마스祝賀會盛況,” 《기독교보》, 1952년 12월 29일, 2; 백창현, 『한국군목회』, 585.

49) “陸軍O部隊祝誕盛況,” 《기독교보》, 1953년 1월 12일, 2.

50) “軍人教會洗禮式,” 《기독교보》, 1952년 10월 13일, 2.

51) “상이군인직업교도소,” 《기독교보》, 1952년 4월 7일, 2.

이로 볼 때, 개신교 신문에서 발견되는 총 15편의 군목의 설교 제목 및 내용 중 4편은 독특성으로 인해 제외하면, 11편이 남는다. 이 중 6편이 신앙전력화와 관계된 설교로 50%를 넘는다. 당시 군목들의 일상적인 설교가 신앙전력화에 초점이 맞추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나사행 군목의 언급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 철두철미한 반공사상은 군목들이 있으므로 더욱 강화되고 또 반드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sup>52)</sup>

이러한 설교는 실제로 군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어느 날 제3육군병원의 이동섭 군목은 무저항주의에 대한 설교를 하였다. 이 때 감화를 받은 계 일등중사는 길에 걸어가는 여성에게 농담을 건넌 사병을 타일렀다가 구타당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사병이었다. 그러나 설교에 감동을 받은 그는 무력으로 되갚기보다는 복음을 알려주고 용서하였다.<sup>53)</sup> 군목들의 설교가 실제로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례였다. 신앙전력화를 위한 설교의 효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교회의 설립, 세례, 예배 등은 군목들의 신앙전력화의 영향력 행사의 범위를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6·25 전쟁 당시 개신교는 군대 내에 교회를 설립하는 활동을 하였다. 1952년 5월 하순에 박용천 군목이 “중부전선 보병 제 5202부대”에 부임한 이후 동년 6월 8일에 진중교회가 설립되었다.<sup>54)</sup> 1952년 7월 첫 주일에는 중부최전선에도 진중교회가 설립되었다.<sup>55)</sup> 1952년에는 “제주도 모슬포에 있는 육군제일훈련소”의 댄스홀이 장도영 준장의 부임 이후 군의 풍기문란을 이유로 교회로 바뀌었다.<sup>56)</sup> 그리고 제주도 제일훈련소에는 훈련소장과 참모들과 박치순 군목이 중심이 되어 석조교회당 설립 계획을

52) 나사행, “한국전쟁은 군목을 불렀다,” 168.

53) “無抵抗主義의 勝利,” 《기독교공보》, 1952년 9월 15일, 1. 이 설교는 제목이 분명하지 않아서 위의 숫자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54) “진중교회감격,” 《기독교공보》, 1952년 6월 30일, 2.

55) “진중교회,” 《기독교공보》, 1952년 7월 28일, 2.

56) “댄스·홀이 예배당으로,” 《기독교공보》, 1952년 3월 10일, 2.

세웠다.<sup>57)</sup> 군병원에도 교회가 설립되었다. 1952년 10월 25일에 “민간인 목사 위두찬”의 노력과 해군부인회와 해군상이군인 20여명의 협력 속에 300명을 수용 가능한 교회가 건립되었다.<sup>58)</sup> 1953년 7월 28일에 대전63육군병원 군인교회의 헌당식이 있었다.<sup>59)</sup> 개신교 신문에 다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상당히 많은 군교회가 설립되었다. 군목제도가 시작된 후 1년 7개월 만에 일선군인교회는 52개, 후방의 군인교회는 75개가 설립되었다.<sup>60)</sup> 1956년 4월 25일까지 280개의 개신교회가 설립되었다.<sup>61)</sup>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에서는 개신교 예배가 거행되었다.<sup>62)</sup> 예배 참석자들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들도 있다. 경주의 18육군병원에 주일 회집 인원은 4-500명이었다.<sup>63)</sup> 제주도의 해군교회(군병원 교회)에는 매주 100여명이 예배에 참여하였다.<sup>64)</sup> 전덕성 군목이 세운 백령도 해병대 교회는 500명이 모였고, 류영근 군목이 시무하는 석도에는 570명이 교회에 모였다.<sup>65)</sup> 부흥회 때는 더 많은 군인들이 모였다. 육군제일 훈련소에 석조 예배당이 설립된 후 1952년 10월 15일에 황금천 군목의 부흥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 오덕준 훈련소장(준장)과 참모들 포함 수천 명이 참석하였다.<sup>66)</sup> 장병대 군인교회와 모슬포 피난민교회와 98군병원교회의 연합 부흥회가 1953년 3월 14일에 열렸고, 오 훈련소장(소장) 및 참모들을 포함하여 1,700명이 참여하였다.<sup>67)</sup>

57) “壯丁精神訓練教會堂設立,” 《기독교공보》, 1952년 3월 10일, 1.

58) “제주도에해군교회,” 《기독교공보》, 1952년 11월 24일, 2.

59) “六三陸軍病院軍人教會獻堂式,” 《기독교공보》, 1953년 8월 10일, 1.

60) “戰時下事業重點主義로生死岐路의軍人傳道부터,” 《기독교공보》, 1952년 11월 17일, 1.

61) 나사렛, “한국전쟁은 군목을 불렀다,” 166.

62) 개신교 신문에 나온 군 예배들을 참고하라. “군민합동예배,” 《기독교공보》, 1952년 4월 7일, 2; “국군각부대도부활연합예배,” 《기독교공보》, 1952년 4월 7일, 2; “陸軍五-〇三部隊教會創立一週年,” 《기독교공보》, 1953년 7월 20일, 1.

63) “자라는 18병원군인교회,” 《기독교공보》, 1952년 4월 28일, 2.

64) “제주에해군교회,” 《기독교공보》, 1952년 9월 1일, 2.

65) “海軍軍牧活動大活潑,” 《기독교공보》, 1952년 10월 6일, 1.

66) “陸本聖歌隊에,” 《기독교공보》, 1952년 11월 3일, 1.

또한 각 교회들에서는 결신, 학습, 세례 집례가 있었다. 1952년 1월 24일에 “육군군의학교 군인교회”에서는 김봉삼 군목의 사회 속에 48명에게 학습 및 세례를 주었는데, 학습인 숫자는 장교가 4명, 사관생도가 16명, 간호장교생도가 13명, 군인가족이 5명이었고, 세례자는 5명, 유아세례자도 5명이었다.<sup>68)</sup> 해군본부교회에서 1952년 2월 10일 정달빈 군목의 사회로 세례식 및 성찬식을 진행하였는데, 김일환 국방부 차관과 최훈섭 육군 중령, 최규남 해군 중령, 김영관 해군 중령을 등 총 15명이 세례를 받았다.<sup>69)</sup> “三八위북양양지구”의 군인교회에 송원록 군목이 부임하여 1952년 5월 24-27일까지 천진리 지구에서 전도 강연을 하여 72명을 결신시켰다.<sup>70)</sup> 제주의 해군교회(군병원 교회)에는 1952년 8월 3일에 세례 15명 학습 13명을 주었다.<sup>71)</sup> “제十五육군병원 군인교회”에서는 1952년 9월 28일에 양세언 군목과장의 사회로 91명에게 학습을 주고 53명에게 세례를 주었다.<sup>72)</sup> 1952년 10월 첫 주에 “해병대 도서부대 본부 군인교회”에서는 세례식이 열렸는데, “본부 중대장 김세권 중위 의무 중대장 소 대위 교육대장 김 중위” 등 총 39명이 세례를 받았다.<sup>73)</sup> 헌병사령부 직속 90헌병대 교회에서 1952년 11월 19일에 대령 1명, 소령 1명, 중위 1명이 세례를 받았다.<sup>74)</sup> 1952년 12월 28일에 제주해군군인교회에서는 김용찬 대위, 윤장로 병조장 외 사병과 환자 21명이 학습과 세례를 받았다.<sup>75)</sup> 일선에 위치한 육군5105부대 이영백 군목은 1953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정창운 목사(신용교회)를 전도 강사로 청빙하여 활동하게 하여 11일에 21명에게 학습을, 3명에게

67) “將兵隊軍人教會復興會,” 《기독교보》, 1953년 4월 20일, 2.

68) “陸軍軍醫學校教會서,” 《기독교보》, 1952년 2월 4일, 2.

69) “國防部次官도受洗,” 《기독교보》, 1952년 2월 11일, 1.

70) “유량한군악연주리,” 《기독교보》, 1952년 7월 28일, 2.

71) “제주해군교회,” 《기독교보》, 1952년 9월 1일, 2.

72) “軍人教會洗禮式,” 《기독교보》, 1952년 10월 13일, 2.

73) “海兵島嶼軍人教會서,” 《기독교보》, 1952년 11월 10일, 2.

74) “海兵將校의受洗,” 《기독교보》, 1952년 12월 8일, 2.

75) “濟州海軍教會聖禮式,” 《기독교보》, 1953년 1월 19일, 1.

세례를 주었다.<sup>76)</sup> 1953년 4월 5일 부활절에 국방부본부군인교회에서는 이상수 소령 외 20명이 세례를 받았다.<sup>77)</sup> 1953년 5월 24일에 해군사관학교교회에서 전덕성 군목의 주례 하에 학습자 33명, 세례자 10명이 있었다.<sup>78)</sup> 해군본부교회는 1953년 4월 2주차에 권 대령, 민 중령, 김 중령, 구 소령 외 23명의 장병에게 세례를 주었다.<sup>79)</sup> 1953년 6월 1일에 제2군단군인교회에서는 박영환 군목의 주례로 김덕해 중령 외 11명 장교와 13명의 하사관이 세례를 받았다.<sup>80)</sup> 개신교 신문에 군과 관련된 모든 결신자, 학습자, 세례자들의 숫자가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 상당수의 군인들이 이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군목제도가 시작할 때 3%였던 군인 신자율도 1년 7개월 만에 10%가 되었다.<sup>81)</sup> 1년 7개월 만에 3배의 군인 신자의 성장은 당시 군목의 활동으로 인해 다수가 결신, 학습, 세례에 동참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상이군인들의 개신교인화가 눈에 띄었다. 제5육군병원의 한 달 동안의 결신자 숫자는 70명이었다. 당시 서승찬 군목이 매일 병실을 400회 이상 방문하였다고 한다.<sup>82)</sup> 당시 육군병원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단을 예로 제시하겠다. 스웨덴 적십자 야전 병원단은 1950년 9월 23일에 부산에 도착하여 부산상고를 임시 병원으로 활용하였다. 이 때 16개 병실에 200병상을 갖추고 부상병들을 치료하였다. 나중에는 600병상까지 확대되었다.<sup>83)</sup> 16개 병실에 200병상이라는 것은 당시 외국 의료부대의 한 병실에 12명 정도 입실

76) “一線軍人교회에復興會,” 《기독교공보》, 1953년 3월 9일, 2.

77) “國防本部軍人教會처음聖禮式舉行,” 《기독교공보》, 1953년 4월 20일, 1.

78) “海軍士官學校洗禮式舉行,” 《기독교공보》, 1953년 6월 29일, 1.

79) “海軍教會聖禮式,” 《기독교공보》, 1953년 5월 4일, 2.

80) “第二軍團信仰으로武裝,” 《기독교공보》, 1953년 7월 6일, 1.

81) “戰時下事業重點主義로生死岐路의軍人傳道부터,” 《기독교공보》, 1952년 11월 17일, 1.

82) “군인병원교회의활동상황,” 《기독교공보》, 1952년 8월 25일, 2.

83) 박지옥, “한국전쟁과 부산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의 의료구호활동,” 『의사학』 19 (2010. 6): 193-194; 196; “伊太利病院 再建에 着手,” 《경향신문》, 1953년 1월 18일, 2. 참고로 이태리 병원도 200병상을 예상하고 재건에 나섰다.

하였음을 말해준다. 또한 당시 선진국인 스웨덴 야전병원의 병상이 600개였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한국 군병원 역시 600병상을 넘지 못했을 것을 추정케 한다. 최대치로 가정하여 제5육군병원의 병상이 600이라면, 병실은 50개 정도였을 것이다. 매일 400회 병실을 방문한 서승찬 군목은 매일 8-9회 정도 같은 50개의 병실을 방문했다는 것이고, 한 달 사이에 최대치로 가정된 600명 중 70명이 개신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된다. 최대로 가정해서 600이라는 병상의 수치는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27육군병원에서 대구영락교회 유년주일학생들이 위문공연 할 때 모인 군인들은 100명이었다. 당시 위문공연은 군인들이 기다리는 시간 중 하나였다.<sup>84)</sup> 27육군병원의 위문공연 당시 모이지 않은 군인들과 중환자들을 감안해도 500명을 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sup>85)</sup> 제주 98육군병원도 400병상이었다.<sup>86)</sup> 상이군인들의 개신교인화 비율이 높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하나의 기사를 더 참고해보자. 경주의 18육군병원은 창립 후 1년 동안 세례자 30명, 입교인 5명, 학습인 123명, 결신자 4천여 명의 결실을 보았다. 1952년 4월 첫 주일에는 세례 7명, 입교 3명, 학습 71명이 있었다.<sup>87)</sup>

이러한 세례는 단순한 예식 이상의 의미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 1953년 해병서해도서부대 본부군인교회에서 1953년 1월 25일에 행해진 55명의 세례 예식의 결과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사병들은 술과

84) 백선엽, 『백선엽의 6.25전쟁 징비록 제3권 두려움에 맞서는 법』 (서울: 책발, 2017), 66. 백선엽은 전쟁터라는 사선을 넘나드는 군인에게 “후방으로부터 오는 위문공연단은 그야말로 긴 가뭄 끝에 만나는 단비와 같”이라고 하였다.

85) “병상에 피는사랑의향기,” 《기독교공보》, 1952년 9월 8일, 2; 윤선자, “6·25 한국전쟁과 군중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14 (2001. 2): 172. 천주교 역시 상이군인에 대한 전도 비율이 높았다. 1951년 168명, 1952년 961명, 1953년 1,030명 상이군인에게 영세를 주었다.

86) 고성식, “한국전쟁 당시 제주 98육군병원 ... 쓸쓸히 사라져 간다,” 《연합뉴스》, 2016년 6월 24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3/0200000000AKR20160623131100056.HTML?input=1195m>(2018년 3월 30일 검색했음),

87) “자라는 18병원군인교회,” 《기독교공보》, 1952년 4월 28일, 2.



담배와 악행을 뉘우쳤고, 기도 시간에 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 그리고 군목에게 해병대원들이 전화로 또는 찾아와서 새사람의 길을 걸겠다고 고백하는 경우도 많았다. 참고로 세례 받은 사람 중에는 장교들도 많았다.<sup>88)</sup> 군목을 통한 세례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군목을 통한 교회 설립, 예배, 세례 등을 통해 개신교를 받아들인 군인들이 군목이 강조했던 신앙전력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계속 언급하도록 할 것이다.

이외에 육군 1199부대 최영환 군목은 「만나」라는 개신교 잡지를 발행하여 문서전도를 하였는데, 성적이 좋았다고 한다.<sup>89)</sup> 이 기사 외에 이 잡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신앙전력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다. 군목과 신앙전력: 위문활동

6·25 전쟁 당시 군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싸웠다. 특히 제공된 식사는 상당히 열악하였다. 훈련소에서는 새우젓이나 소금을 엮은 주먹밥과 국이었고, 전선에는 국도 제공받지 못했다. 겨울에는 푹푹 언 주먹밥 하나 먹고 전쟁에 나가야만 했다.<sup>90)</sup> 열악한 식량 사정은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1952년 26사단 양영배 군목(대위)은 소금 발린

88) “海兵敎會에 聖禮式盛大,” 《기독공보》, 1953년 2월 9일, 2.

89) “陸軍第一一九九部隊,” 《기독공보》, 1952년 2월 4일, 2.

90) 홍원기, 『6·25 참전 언론인들의 생생한 증언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 (서울: 社團法人大韓言論人會, 2013), 98. 송두빈의 증언. “강원도 춘천 북방에 이르자 벌써부터 포성이 들려왔다. 푹푹 언 주먹밥 한 덩어리를 받아먹고 즉시 전투에 투입됐다.” Ibid., 183. 이종식의 훈련소 시절 증언. “민가에서 얻어온 식기는 거의가 밀바닥이 삭아 그릇에 밥을 푸고 그 위에 국물을 부으면 국물은 모두 아래로 빠지고 밥은 소금기만 약간 남는 형국이었다.” 이후 보충대(경기여교)에서 제공받은 식사는 “흰 쌀밥에 헤아릴 수 있을 만큼의 새우젓을 엮은 주먹밥”이었다. Ibid., 195. 지용우에 따르면, 훈련소 신병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설익은 보리밥과 소금국에 가까운 시금치국이 전부였다.”

주먹밥 한 덩어리만 먹고 참호공사를 하는 사병들이 식사 배급에 불만을 품고 단식투쟁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sup>91)</sup>

사회에서도 이러한 군인들의 어려운 환경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경향신문은 군인들에게 담배와 휴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sup>92)</sup> 동아일보도 “丹誠[단성]의 慰問品[위문품]을 보내는 無名[무명]의 愛國運動[애국운동]을 全開[전개]해야 하겠다”고 하였다.<sup>93)</sup> 공보처에서는 1951년 위문문을 모집하여 5편을 일선장병에게 보내기도 했다.<sup>94)</sup>

군목들도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위한 위문과 위문품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군목들을 중심으로 위문 활동이 전개되었다. 1952년 성탄절에 해군본부 군인교회는 정달빈 군목을 중심으로 축하위문단을 조직하여 전방에 위문공연과 위문품 증정을 할 예정이었다.<sup>95)</sup> 박창번 군목(대위)은 서부전선으로 위문을 가서 제주도도민들이 준비한 위문품(미역, 간어, 오징어 등)을 나누어주었다. 이에 장병들은 “오늘은 연대장님 생일이야!”라는 환호성과 함께 만족하였다.<sup>96)</sup> 1952년 10월 26일에 정달빈 군목이 대장으로 있던 해군어린이합창단은 국방부군인교회에서 예배의 형식으로 위문공연을 했다.<sup>97)</sup> 1953년 4월 26일에 해병대사령부교회는 유명한 음악가들을 초청하여 음악예배를 드렸는데, “헨델의 할렐루야”도 불렀다.<sup>98)</sup>

군목들은 사회에 군인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하였다. “해병

91) 백창현, 『한국군목회』, 313.

92) “一線의 소리,” 《경향신문》, 1953년 1월 9일, 2.

93) “無名의 愛國者,” 《동아일보》, 1951년 11월 29일, 1.

94) “一線의 소리,” 《동아일보》, 1951년 3월 21일, 2.

95) “慰問文集傳達 公報處서 一線將兵에게,” 《기독공보》, 1952년 12월 15일, 2.

96) “一線慰問記,” 《기독공보》, 1952년 9월 15일, 2; 백창현, 『한국군목회』, 585. 박창빈으로 종종 기사에 소개되는 경우가 있으나 박창번이 실명이다.

97) “國防部軍人敎會禮拜,” 《기독공보》, 1952년 11월 3일, 1; “해군 어린이 음악대,” 《기독공보》, 1952년 7월 28일, 2. 정달빈 군목이 이 해군어린이합창단의 대장이라는 내용은 이 기사를 참고하라.

98) “海兵司令部敎會音樂禮拜,” 《기독공보》, 1953년 5월 4일, 2.

대 사령부 군목실장” 박창변은 전몰유가족의 위로와 원호물자 분배의 목적 하에 제주도를 방문하였는데, 이 때 제주도민들은 제주도 출신 장병들의 전공을 듣고, 1952년 6월 2일에 위문문과 위문품을 박창변 군목에게 보내왔다. 이러한 위문품은 떡국과 생선 등이었고, 박 군목은 후방의 위문품 지원을 적극 권장하였다.<sup>99)</sup> 여기서 제주도민들이 개신교인들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언급은 없다. 일반 민간인으로 보이며, 박창변 군목에게 위문품을 보낸 것으로 보아, 박창변 군목의 제주도 방문 당시에 박 군목이 군 위문품과 관련된 홍보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박창변 군목은 위문품의 중요성을 종종 언급하였다. 그는 서부전선을 위문하면서 군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소개하면서 “後方國民[후방국민] 여러분에게 積極 要請[적극 요청]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끊임없이 慰問物品[위문문품]을 戰線[전선]에 보내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이었다”라고 하였다.<sup>100)</sup>

하와이 동포들이 1952년 4월에 보낸 의류 555포대는 해군본부 군목실로 들어왔다. 이것은 해군과 해병대와 문관 전원에게 분배될 예정이었다.<sup>101)</sup> 군목실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동포들이 개신교인이었을 가능성과 군목이 하와이에 홍보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상이군인들에 대한 군목의 관심은 국가가 병든 군인들을 끝까지 돌본다는 확신을 준다는 점에서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sup>102)</sup> 참고로 군인병원의 상황은 열악했다. 군인병원은 초

99) “제주도민일선장병에위문품,” 《기독공보》, 1952년 6월 30일, 2.

100) “一線慰問記,” 《기독공보》, 1952년 9월 15일, 2.

101) “하와이거류동포의애족심,” 《기독공보》, 1952년 5월 26일, 1.

102) “敎界聲援軍士氣에反映,” 《기독공보》, 1952년 8월 18일, 1. 한국 교회는 1952년 7월 15일-7월말까지 상이군인의 보훈을 위한 의연금 모금 운동을 벌였고,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명의의 감사장을 개신교계(구세군,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에 보냈다. 여기에는 상이군인 원호 운동이 군사기 진작에 유익할 것임이 분명히 나왔다. “이 事業[사업]의 成\*는 그대로 우리 一線將兵[일선장병]의 士氣[사기]에 反映[반영]되어 人間의 尊嚴性[인간의 존엄성]을 無視[무시]하며 神[신]을 蔑[모]독하는 共產侵略者[공산침략자]의 頭上[두상]에 鐵[철]추가 될 것이며”

등학교와 일반 건물들을 임시로 사용하는 수준이었고,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지학순이 1951년 4월-5월경에 제3육군병원에 입원했을 때, 상이군인 300여명은 토성초등학교 강당의 침대에 누워있었고, 20명당 한 명의 위생병이 배치되어 돌보았다.<sup>103)</sup> 이런 상황에서 군목들은 상이군인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구육군병원에 군목으로 근무하던 황복연 전도사는 교회와 병원을 연계시킬 뿐 아니라 민간단체에도 상이군인을 위문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대구광유회사, 조선양조회사, 한국은행, 조선수산주식회사 등에서 위문품을 보내왔다.<sup>104)</sup> 1953년 3월 23일에 육군군목들은 회의를 하였고, 고난주간에 시내의 여러 육군병원에 위문하며 전도하기로 하였다.<sup>105)</sup> 1953년 6월 28일에 육군본부 군목부 주최로 대구중부교회에서 육이오기념음악예배를 드렸는데, 이 때 드려진 헌금 전부는 제일육군병원의 상이군인의 위문금으로 쓰였다.<sup>106)</sup> 그러나 이러한 군목들의 상이군인을 위한 위문활동이 당시 민간 교회들의 활동에 비해 왕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5육군병원 2병동 군인교회에서 7월 한 달간 12번의 위문활동이 있었는데, 이중 군목의 활동은 사과와 수박 대접, 단 한차례였고, 하나는 사회부장관의 우유 기부, 나머지는 선교부와 개신교 학교 및 교회들의 활동이었다.<sup>107)</sup>

오히려 군목들의 상이군인에 대한 활동은 사회 재활 훈련에 집중되었다. 부상의 후유증으로 장애인이 되는 상이군인들이 있었다. 군목들은 장애로 전역한 부상병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정달빈 해군군목실장

103) 지학순, 『내가 겪은 공산주의』,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7), 257. Ibid., 188. 참고로 전쟁 초기에 부산에 마련된 육군병원에는 부상병들이 매일 밀려들어 왔고, 병원인력부족으로 상이군인들에 대한 치료와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104) “大邱教會陸病慰問,” 《기독교보》, 1953년 1월 5일, 2.

105) “傷痍軍人信仰干證會,” 《기독교보》, 1953년 4월 6일, 1.

106) “六·二五記念音樂禮拜,” 《기독교보》, 1953년 7월 20일, 1.

107) “군인병원교회의활동상황,” 《기독교보》, 1952년 8월 25일, 2.

의 중재로 해군부인회에서 40만원을 기부 받아서 해병대 내에서 직업 교도소가 시작되었다. 소장은 박창번 군목이었고, 4달 동안 시계부, 사진부, 영문타이핑부 등이 교육되었다. 그 결과 1952년 3월 31일 1회 수료식 때 17명이 새롭게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sup>108)</sup> 1953년 11월 10일에 서울 해군본부에는 해군기술교도소 서울분실이 설치되었는데, 소장은 박창번 군목이었다. 해군부인회에서 이 기관에 상이군인과 전쟁미망인을 위한 성금을 보낸 것으로 보아 상이군인을 위한 시설이었을 것이다.<sup>109)</sup>

## 라. 신앙군인들의 활동

6·25 전쟁 당시 한국 군대에는 개신교인들이 있었다. 공군사관학교 졸업 3일을 앞두고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최예송은 부산영락교회 교인으로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확고한 신앙인이었다.<sup>110)</sup> 김현일 공군 대위는 월남 개신교인으로 공군에 복무하여 전투기를 타고 출격하던 중 적에게 발견되자 적진에 자폭하여 전사하였다.<sup>111)</sup> 최용덕 공군참모장도 신실한 개신교인이었다. 그는 미국 공군 시찰을 위해 도미하게 되었다.<sup>112)</sup> 해군중참모장으로 복무하다가 1953년 6월 30일에 국방장관에 임명된 손원일 중장도 개신교인이었다.<sup>113)</sup> 2대 해병대사령부 사령관으로 취임하게 된 김

108) “상이군인직업교도소,” 《기독교공보》, 1952년 4월 7일, 2; “신앙적직업인으로,” 《기독교공보》, 1952년 6월 9일, 2. 2회 수료식은 1952년 5월 31일에 있었고, 총 7명이 수료하였다. “海軍傷痍軍人,” 《기독교공보》, 1952년 12월 1일, 1. 1952년 11월 26일에는 박창번 군목의 사회 하에 3회 수료식이 있었다. “海軍傷痍軍人技術矯導所四次修了,” 《기독교공보》, 1953년 7월 20일, 1. 4회 수료식은 1953년 8월 15일에 거행될 예정이었다.

109) “海軍技術矯導所서울分室設置,” 《기독교공보》, 1953년 11월 16일, 1.

110) “空軍卒業三日 앞두고 崔君天國에 被召,” 《기독교공보》, 1953년 4월 6일, 2.

111) “信仰青年金賢一空軍大尉敵軍에 自爆,” 《기독교공보》, 1953년 7월 6일, 1.

112) “空軍參謀長崔將軍渡美,” 《기독교공보》, 1953년 11월 2일, 1.

석범 소장도 독실한 개신교인이었다. 이에 해군본부 군목실에서는 취임축하예배를 드렸다.<sup>114)</sup> 김재걸 대위는 한경직 목사와 함께 월남한 고야 출신으로 6·25 참전용사였다.<sup>115)</sup> 군인유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며 구제하고 자신의 모교회의 개신교 군인가족들의 생계를 구제하기도 한 김응희 중령은 모친이 집사고 형은 장로인 개신교인이었다.<sup>116)</sup> 전쟁 발발 전에 개신교인으로 군복무 하던 지휘관들도 있었다. 백인기 보병 제 12연대장(중령)과 전찬영 12연대 3대대장(소령)은 민간 목사들을 초빙하여 군에서 주일예배를 거행하였다. 이후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후 정원형 중위와 한병근 소위(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사 한석진의 손자)는 미군의 교회에서 개신교 집회를 개최하여 400여명이 모이기도 하였다.<sup>117)</sup> 원용덕 장군은 “북한 기독교 목사의 아들”이었다.<sup>118)</sup> 그 외에 박경화, 오자복, 이흥균, 채명신, 박세직, 신태영, 박창원, 이민영, 정득만, 조주태도 신앙 군인이었다.<sup>119)</sup>

개신교 군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개신교 전도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개신교 신앙의 사생관을 기초로 신앙전력화를 촉진하였을 가능성에서, 군목들과의 연대를 통해 신앙전력화의 메시지를

113) “孫元一海軍中將國防長官就任,” 《기독교보》, 1953년 7월 13일, 1. 그는 해군을 떠나게 될 때 해군본부군목실에서는 이임송별예배를 드렸다. 군인교회는 그에게 신구약 성경을 선물로 주었고, 그는 “이 말씀에 依[의]하여 忠誠[충성]하겠다”라고 말하며 “육의 糧食[양식]보다 영의 糧食[양식]을 받도록 努力[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重責[중책]에 最善[최선]을 다할 覺[각]오이다”라고 말했다.

114) “海兵隊司令官金錫範少將就任祝賀禮拜,” 《기독교보》, 1953년 11월 16일, 2.

115) 김병희 편저, 『한경직목사』, 70-71.

116) “武人信仰美談두토막,” 《기독교보》, 1953년 9월 14일, 1.

117) 백창현, 『한국군목회』, 105-106.

118) Kai Yin Allison Haga, “AN OVERLOOKED DIMENSION OF THE KOREAN WAR: The Role of Christianity and American Missionaries in the Rise of Korean Nationalism, Anti-Colonialism, and Eventual Civil War,” (Phd diss., The College of William and Mary in Virginia, 2007), 307.

119) 군복음화후원회 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비역 장군 17인의 신앙수기 모음집』 (서울: 쿠퍼출판사, 1993) 여기에 해당 인물들의 참전 수기가 나오니 참고하라.

듣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희섭 제3육군병원의 원장(대령)은 군목제도 설립 전부터 전도운동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전덕성 군목이 부임한 후 1952년 1월 10일에 기독교청년회를 조직하였다. 여기에는 정희섭 대령과 전덕성 군목 외에 김남규 중령, 김종호 대위, 전동연 전도사, 이윤실 대위, 우병익 하사 등 간부들이 다수 포함되었다.<sup>120)</sup> 육군제7758부대는 군목이 없는 상황에서 김세환 중위의 노력으로 신앙운동이 전개되었고, 이산주 군목이 부임하자 교회의 업무를 군목에게 이양하였다. 이 부대에는 신학교 졸업 장교가 2명이 더 있었다.<sup>121)</sup> 광주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김영도 소령은 독실한 개신교인으로 장병들에게 전도도 하고 주일을 성수하였다.<sup>122)</sup> 사병이 전도 활동에 매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군본부통신대 소속 박재암 수병 등은 군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시간이 날 때마다 전도하였고, 이에 20명이 개신교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sup>123)</sup>

특별히 지휘관들이 개신교인일 경우 개신교의 활동이 힘을 받았다. 개신교 지휘관들은 그들의 부대의 개신교 행사에 참여하여 개신교를 지지해주었다. 1952년에 백선엽은 군단장은 “육군제—00부대”에 박형순 군목의 배속의 결과로 생긴 군목부 창설 예비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하였다.<sup>124)</sup> 각 부대 개신교 지휘관들에 의해 군부대의 행사가 개신교 군목의 기도로 시작과 폐회되는 경우도 있었다. 1953년 7월 21일 공산군 4만이 죽은 “金城會戰”[금성회전]에서 한국군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북한산 부대”라는 별명을 가진 한관홍 대령의 부대였다.

120) “第三陸軍病院에,” 《기독교공보》, 1952년 1월 21일, 2.

121) “陸軍七七五八部隊中教會消息,” 《기독교공보》, 1953년 7월 6일, 2.

122) “믿음으로싸운勇將,” 《기독교공보》, 1953년 8월 3일, 2. 그는 전투 중 부상을 입어 제일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동래정양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다시 전투에 투입하여 싸우다가 1953년 7월 22일에 사망하였다. 그는 유엔 훈장과 국군 금성훈장 은성훈장 외 많은 훈장을 받은 인물이었다.

123) “金水兵傳道에도勇敢,” 《기독교공보》, 1953년 3월 23일, 1.

124) “육군제百부대 군목부창설,” 《기독교공보》, 1952년 6월 16일, 2.

이 부대는 백암산을 돌파해서 금성천 인근 3개 고지를 사수하여 적군의 후방을 기습할 수 있었다. 이 부대의 김광순 부부대장(중령)은 독실한 개신교인으로서 중요할 때에 군목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였다.<sup>125)</sup> 전후의 기사이긴 하지만, 참고할만한 것이 있다. 상무대 포병학교에서는 포병창설 5주년을 맞아 1953년 11월 10일에 기념식을 하였는데, 행사 전에 박영환 군목이 기도를 하였고, 폐회식 역시 박영환 군목의 축도로 마무리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심홍선 포병학교장(대령)이 신실한 개신교인이었고, 김계원 교감(준\*)은 장로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있었다.<sup>126)</sup> 육군제1\*03공병단은 창립 3주년 기념식을 1953년 11월 14일과 15일에 행하기에 앞서 14일에는 신축한 군인교회 봉헌식을 하였고, 15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진행하였다. 이 부대는 모든 행사의 첫 시간은 예배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개신교인인 박기석 공병단장(대령)과 모한영 부단장(중령)의 영향이 컸다. 박 대령은 군목 활동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였고, 모 중령은 장병의 신앙을 격려했다.<sup>127)</sup> 전후의 이런 모습들은 전쟁 중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개신교 지휘관들은 소속 장병들에게 개신교 신앙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중부전선의 육군제8753 박기병 부대장(준장)은 개신교인으로서 주일예배를 빠지지 않고 전 장병이 교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으며, 서중철 부부대장(대령)과 박남표 참모장(대령)도 박 장군을 도와 개신교에 협조적이었다.<sup>128)</sup> 육군8057부대 김광순 부대장(중령)은 독실한 개신교인으로 자비로 성경과 찬송가와 전도문서를 사서 고지의 사병들에게

125) “血海이룬中部戰線,” 《기독교보》, 1953년 8월 3일, 2.

126) “李大統領信仰을激勵,” 《기독교보》, 1953년 11월 30일, 1. 이 학교에서 사관후보생들은 7시간 이상 군목교육을 받아야 했다.

127) “記念行事는禮拜로始作,” 《기독교보》, 1953년 11월 16일, 1.

128) “信仰常勝의 八七五二部隊,” 《기독교보》, 1953년 9월 21일, 1. 박 장군은 “공비토벌王”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박 장군은 부대의 대사에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참모회의 시간에는 군목의 기도 후에 시작했으며 군목의 사업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나누어주며, 예배시간에 스스로 종을 올려 병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sup>129)</sup> 해병김포부대 심희락 부대장(소령)과 김한서 부부대장(소령)은 신앙인으로서 그들의 도움과 반병섭 군목의 노력으로 매주 개신교 입교자가 40여명에 달했고, 월 150명의 입교자가 생겼다.<sup>130)</sup>

지휘관이 신앙전력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앙심이 깊었던 김성은 대령은 미군 군목에게 해병대 장병들의 궁핍한 생활을 이야기하여 구호물자 300여 상자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이것을 장병들의 가족들에게 나누어주었다.<sup>131)</sup> 그는 수도방어에 투입된 해병대 제일전투단의 부대장으로 1952년 11월에 부임하면서 신앙으로 무장할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信仰[신앙]안에서 다윗이 敵將[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民族[민족]과 祖國[조국]을 救援[구원]할 것과 같이 우리도 信[신]앙 안에서 敵[적]을 물리치고 民族[민족]과 祖國[조국]을 救援[구원]합시다.” 그리고 군목과 함께 군 복음화를 위해 활동하여 야전 예배당도 건립하였다. 오명복 부부대장(중령) 등 참모들도 개신교인이 많았다.<sup>132)</sup>

### 3. 결과 : 개신교는 무형의 정신전력

실질적으로 군목과 정신전력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2건의 글이 있다. 6·25 당시 중령이었던 박창원의 글과 손원일 제독의 부인인 홍은혜의 글을 살펴보자.

129) “武人信仰美談두토막,” 《기독교공보》, 1953년 9월 14일, 1.

130) “每週日決信者40名,” 《기독교공보》, 1953년 10월 26일, 1.

131) “將兵家族의生活까지돌아보는信仰武人金聖恩大領,” 《기독교공보》, 1953년 7월 20일, 1.

132) “我海兵隊의信仰武裝,” 《기독교공보》, 1953년 1월 19일, 1.

용문산 전투에 앞서 그분들을 모시고 전부대원들에게 세례를 받게 했다(신부님은 영세를 주셨고). 세례를 받고서 정신 무장이 된 우리 부대원들은 그 전투에서 적 4천 5백명을 생포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훗날 나는 국방부에서 전사를 보고하는 가운데서 말했다. “이 전투의 승전 원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항공기의 엄호가 주효했고, 또 하나는 믿음이었다. 모든 병사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죽음의 공포를 떨치고서 담대히 나가 싸웠기 때문이다.”<sup>133)</sup>

어느날 정일권 대장이 손원일 국방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다. 중공군의 남침이 치열하여 국군은 점점 남쪽으로 밀려내려만 오고 모두 용기를 잃고 있었으며 아무리 위험을 헤쳐나가자고[sic] 외쳐도 연대장의 명령이 도무지 통하지 않아 한사람도 일어날 생각조차 안하고 있을 때였다. 연대장은 생각 끝에 군목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 목사는 곧 일어서서 장병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한 후 “국군여러분, 당신들의 한발자국 전진은 대한민국의 전진이요, 당신들의 한발자국 후퇴는 곧 대한민국의 후퇴입니다. 우리들이 최선을 다 할 때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다 일어납시다”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에 힘을 얻은 국군은 일제히 일어나서 고지로 고지로 전진하여 위기를 면했다고 하며 군목제도의 실시에 감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sup>134)</sup>

군목의 신앙전력화 활동이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사기 진작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군목의 세례를 통해 군인들의 정신전력이 향상하였다. 그리고 군목의 찬송, 기도, 설교를 통해 군인들은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군목의 활동과 신앙전력화를 말하는 기록들은 이 이상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추정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기록들이 있다. 연구자는 아래에서 다양한 기록들을 종합해서 이를 논증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sup>135)</sup>

133) 박창원,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그 열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비역 장군 17인의 신앙수기 모음집』, 75.

134) 홍은혜, 『우리들은 이 바다 위해』 (서울: 가인기획, 1990), 168-169.

135) 군목과 연관된 것은 아니나 개신교의 사생관과 정신전력의 연관성을 의미하는 기록이 있다. 채명신, “하나님의 가호로 사선을 뚫다,” 『역경의 열매-기적의 수수

## 가. 부대장들의 개신교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평가

1950년 3월부터 6월초까지 9주간 한국에서는 밥 피어스 목사 (Rev. Bob Pierce)를 중심으로 서울, 대구, 인천, 대전, 부산, 개성을 포함하는 전국복음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때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뿐 아니라 군대에서도 이들의 집회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 그 이유는 “기독교 믿음이 공산주의 침투를 억제하는데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다.<sup>136)</sup> 군대에서 개신교가 반공의 도구임을 인식하고 집회를 요청했던 것이다. 개신교가 군대 정신전력에 도움이 된다면, 군 지휘관들은 개신교를 적극 장려하게 된다. 그러나 개신교가 군 정신전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개신교를 지휘관 차원에서 굳이 장려할 이유가 없다. 군대 지휘관들의 개신교에 대한 태도는 개신교의 신앙전력화를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된다.

사실 처음 군목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부대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師團長[사단장]이나 參謀[참모]들까지 軍牧業務[군목업무]에 對[대]한 아무런 認識[인식]이 없던 當時[당시]의 苦痛[고통]스럽던 이야기는 참말 후방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짐작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당시 장교들은 군목을 마부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병들은 의무 담당관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sup>137)</sup> 군목제도가 처음 실시되었을 때 군 부대장들은 군목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았고, 참모의 자격도 부

---

끼기』, 조용우 편 (서울: 국민일보 출판국, 1991), 57. “태백산 공비토벌이 종료된 뒤 6·25가 일어났다. ...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큰 공포는 없다. 그러나 내세를 믿는 이에게는 죽음이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영생과 기쁨이 있을 뿐 고통이 없는 내세에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치밀한 작전, 골육지정의 통솔을 통한 인간적 단결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136) Kai Yin Allison Haga, “AN OVERLOOKED DIMENSION OF THE KOREAN WAR: The Role of Christianity and American Missionaries in the Rise of Korean Nationalism, Anti-Colonialism, and Eventual Civil War,” 304-306.

137) “軍牧草創期의애로도듣고,” 《기독교공보》, 1953년 12월 7일, 2.

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1년 7개월가량 지났을 때에는 참모의 자격을 부여할 뿐 아니라 군목이 없이는 전투에서와 상이군인 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인정하였고, 일부 지휘관들은 전쟁에 군목의 동행을 요구하였다.<sup>138)</sup> 실제로 1956년 4월 27일 밤에 장도영 육군참모차장(중장)은 개신교인으로 “공산주의 사상과 대항하는 기독교가 부흥하며 군대에 군목이 있다는 이 두 가지의 역사적 사실만은 세계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군목들에게” 말했다.<sup>139)</sup> 이는 군목을 통한 정신전력을 부대 지휘관들이 현장 속에서 확인하였음을 말해준다. 지휘관들이 군목들의 활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들은 많다. 그 사례들을 기사들을 통해 확인해보자.

부대장들은 자신의 부대에 교회가 설립될 때 참여하여 격려사와 현금을 하며 교회 설립을 돕는 경우가 많았다. 1952년 5월 4일 부산의 해병대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 뿐 아니라 “함태영 심계원장, 국회의원 박영출 씨, 국방차관 김일환 씨, 해군총참모장 손원일 중장 및 해병대 사령관 신현준 소장 기타 여러 장성”들이 참석하였다.<sup>140)</sup> 1952년 7월 첫 주일 중부최전선 지구에 진중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정 부대장은 격려사와 함께 십만 원의 현금을 바쳤다.<sup>141)</sup> 1952년 7월 13일에 백령도 해병대 교회 설립 당시 연대장이 참석하여 인사하였다.<sup>142)</sup> 1953년 6월 4일에 육군제7255부대의 군인교회 헌당예배는 300명이 회집한 가운데 한충렬 부대장(대령)이 축사를 하였다.<sup>143)</sup> 육군병참학교에 군인교회가 설립되고 1953년 6월 28일에 헌당예배를 드릴 때, 문대봉 학교장(대령)과 장병 200명이 참석하였고, 문 대령이 축사를 하였다.<sup>144)</sup>

138) “戰時下事業重點主義로生死岐路의軍人傳道부터,” 《기독교공보》, 1952년 11월 17일, 1.

139) 나사행, “한국전쟁은 군목을 불렀다,” 168.

140) “해병대교회준공,” 《기독교공보》, 1952년 5월 12일, 2.

141) “진중교회,” 《기독교공보》, 1952년 7월 28일, 2.

142) “해병대도사부대에 군인교회,” 《기독교공보》, 1952년 8월 11일, 2.

143) “七二五部隊軍人教會設立,” 《기독교공보》, 1953년 7월 6일, 2.

군인교회의 일반 행사(부흥회 및 예배)에도 부대장들이 참여하였다. 1952년 성탄절에 육군 1801부대 군인교회 성탄예배에 박정채 부대장(대령)이 참석하였다.<sup>145)</sup> 1953년 1월 4일부터 한 주간 백령도 해병대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군민이 다수 참석하였고, 특별히 김두찬 부대장(대령)도 참석하였다.<sup>146)</sup> 1953년 3월 14일에 장병대군인교회와 모슬포피난민교회와 98군병원교회의 연합 부흥회가 열렸을 때, 오 훈련소장(소장) 및 참모들이 함께 하였다.<sup>147)</sup> 1953년 4월 26일 해병대사령부 교회에서 진행된 음악예배에는 해병대사령관이 참여하였다.<sup>148)</sup> 1953년 6월 10일에 31육군정양병원 군인교회가 신축되자 당일에 전채선 목사의 부흥회가 있었다. 이 때 김남규 병원장(대령)이 참석하였다.<sup>149)</sup> 1952년 6월 14일 육군군 의학교 졸업 환송 예배 때 “부교장 김영희 대령을 위시하여 오 중령, 본부사령 선우 중위가” 참석하였다.<sup>150)</sup> 제7회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을 맞아 해군사관학교 교회에서는 1953년 5월 28일 전덕성 군목의 사회 하에 환송예배를 드렸는데, 이 때 해군사관학교 교장이 참여하였다.<sup>151)</sup>

개신교 행사에 참여한 군 간부의 격려사에 신앙전력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해병대의 한 연대가 새롭게 창설되는 것을 경축하기 위한 축하음악예배가 초청된 교회 찬양대들과 진해여중 학생들의 조력 하에 해병대 군목실 주관으로 거행되었을 때, 연대장을 대신하여 부연대장은 모인 2,500명의 “전장병에게 信[신]양과 勝利[승리]에의 確[확]고한 信念[신념]을 고무”했다.<sup>152)</sup>

144) “陸軍兵站學校에軍牧配屬,” 《기독교공보》, 1953년 7월 27일, 1.

145) “陸軍O部隊祝誕盛況,” 《기독교공보》, 1953년 1월 12일, 2.

146) “海兵隊進駐이래活氣씨는白嶺島の福音運動,” 《기독교공보》, 1953년 2월 9일, 2.

147) “將兵隊軍人교會復興會,” 《기독교공보》, 1953년 4월 20일, 2.

148) “海兵司令部敎會音樂禮拜,” 《기독교공보》, 1953년 5월 4일, 2.

149) “三一陸軍靜養病院復興會大盛況,” 《기독교공보》, 1953년 6월 29일, 2.

150) “위정장교환송음악예배,” 《기독교공보》, 1952년 6월 23일, 2.

151) “海士第七期卒業生\*迎禮拜盛大,” 《기독교공보》, 1953년 6월 15일, 1.

152) “海兵隊第O聯隊創立祝賀禮拜舉行,” 《기독교공보》, 1953년 9월 21일, 2.

부대장들이 교회 설립에 감사장을 수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도의 육군제일훈련소 군인교회가 천 평 규모로 설립되어 1952년 10월 14일 11시에 헌당예배를 드렸다. 이 때 이 교회를 설립하는데 큰 기여를 한 박치순 군목, 최종갑 중위, 관대석, 서명복 하사에게 오덕준 훈련소장이 표창장을 수여하였다.<sup>153)</sup> 훈련소장이 단순히 참관한 것을 넘어 교회 설립에 노고가 있는 인물들에게 표창을 했다는 것은 당시 군 지휘관들이 교회를 군 정신전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았음을 암시한다.

개신교인들의 행사에 부대장이 감사장을 수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육군제일훈련소에 석조 예배당이 설립된 후 1952년 10월 15일에 황금천 군목의 부흥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 오덕준 훈련소장과 참모들 포함 수천 명이 참석하였다. 이후 황 군목과 성가대는 각 숙영지를 방문하여 소집회를 열었다. 이러한 성가대의 활동에 오덕준 훈련소장은 감사장을 주었다.<sup>154)</sup> 대한신학교 학생 4인이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중부전선을 방문하여 위문 활동을 하였다. 이 때 그들은 적과의 거리가 1km정도인 최전방에까지 가서 위문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최전방을 오래 순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하며, 김문봉 2사단장(소장)은 감사장을 증정하였다.<sup>155)</sup> 휴전 이후의 일이다. 1953년 8월 15일에 춘천중앙교회 신도 40여명이 육군제7839부대에서 위문공연을 하자 고평도 부대장은 감사장을 수여하였다.<sup>156)</sup>

153) “陸一訓에홀入한石造教會,” 《기독교보》, 1952년 11월 3일, 1.

154) “陸本聖歌隊에,” 《기독교보》, 1952년 11월 3일, 1.

155) “最前方慰問은이번이처음,” 《기독교보》, 1953년 2월 16일, 2.

156) “春川中央教會서七八三九部隊慰問,” 《기독교보》, 1953년 8월 31일, 1. 이 외에 국군 군목은 아니나 감사장을 받은 경우들도 있었다. “從軍宗教記者부쉬버氏에感謝狀,” 《기독교보》, 1953년 9월 24일, 1. “기독교 信者[신자]로서 後方地區 濟州[후방지구 제주]도 第一訓련所[제일훈련소]를 비롯하여 一선지區[구]까지 慰問[위문]하여 많은 宗教書籍[종교서적]을 配布[배포]하여 주었으며 軍인敎會[군인교회] 形편을 映畫[영화]로 촬영하여 海外[해외]에 宣傳[선전]하여 준 濠洲從軍기者[호주중군기자] 「다그라스·부쉬버」 씨에 對[대]하여 陸軍總參謀長

특히 군목 파송에 총참모장이 개신교계에 감사장을 보냈다.

陸軍本部[육군본부]에서는 軍牧制度創設以來[군목제도창설 이래] 各[각]교團[단]에서 派遺[과전]된 軍牧[군목]에 對[대]하여 各[각]교團[단]이 直接[직접] 그 生活費[생활비]를 負擔[부담]할 뿐 아니라 수많은 종교 書籍[서적]과 粉糶[분유] 衣類[의류 등]을 捐贈[증]하여 奉[대]하여 國軍[국군]의 士氣振擻[사기양양]에 많은 功績[공적]이 있었음을 높이 讚揚[양]하고 있으며 이에 對[대]한 具體的[구체적]인 統計[통계]를 作成[작성]하여 總參謀長[총참모장]의 感謝狀[감사장]을 수여키로 되었다 한다.<sup>157)</sup>

더 나아가 부대장들이 교회 설립을 계획하였다. 1952년 6월 8일 중부전선의 보병제5202부대에 교회가 설립된 것은 부대장과 참모들의 협력 속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부대장은 설립 예배에 참석하였다.<sup>158)</sup> 육군제5105부대 군인교회가 설립되는 데는 미군의 원조도 있었지만, 사단장과 전 장병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래서 교회는 부대의 가장 좋은 곳에 건축되었다. 또한 헌당식에는 백 병무감(준장)과 지휘관들이 참여하였다.<sup>159)</sup> 1953년 6월 2일에 헌당식을 한 육군제5028부대의 군인교회는 설립에 이동백 군목의 노력과 박태양 부대장(중령)의 협조, 그리고 풍금을 제외한 교회 비품을 마련한 장병들의 헌금이 큰 역할을 하였다.<sup>160)</sup> 제2군단의 군인교회는 백선엽이 군단장으로 있고 김웅수 참모장(준장)이 있을 때 크게 발전하였고, 2대 군단장으로 유재홍이 부임한

[육군총참모장]은 感謝狀[감사장]을 授與[수여]하였다 “전시교회의 모범,” 《기독교공보》, 1952년 8월 25일, 2. 중앙교회의 노진현 목사는 전쟁 기간 동안 군인 위문 등 애국활동을 하였고, 이에 1952년 8월 3일에 오덕준 11사단장(준장)이 보낸 감사장에는 “후방 교회의 이와 같은 일은 군 사기에 큰 힘을 반영해 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海軍軍牧業務創設五週年맞이,” 《기독교공보》, 1953년 6월 22일, 1. 1953년 6월 14일에 정달빈 군목에 대한 부통령 등의 표창 수여가 있었다. 수여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 각주로 처리한다.

157) “各教團軍牧輔助實態,” 《기독교공보》, 1953년 9월 14일, 1.

158) “진중교회감격리에첫예배,” 《기독교공보》, 1952년 6월 30일, 2.

159) “軍人教會獻堂式盛大,” 《기독교공보》, 1953년 4월 13일, 1.

160) “擴充되어가는陸軍軍人教會,” 《기독교공보》, 1953년 7월 6일, 1.

후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교회에 주었고, 정일권이 군단장으로 부임하면서 천막 예배당을 대신하여 사령부 중앙에 수백 명을 수용 가능한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정 군단장은 참모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왔다. 물론 유근찬 참모장(대령)은 독실한 개신교인이었고, 정일권도 개신교인이었다.<sup>161)</sup> 휴전 후 5103부대의 교회 설립(1953년 9월 25일에 현당 예배)에 기여했던 이는 차광훈 군목 뿐 아니라 부대장과 각 참모들도 있었다.<sup>162)</sup> 부대장이 신앙전력화의 목적을 위해 교회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도의 제일훈련소장은 석조예배당 건립 계획을 세웠는데, 기사에 따르면 “군인으로서의 첫걸음을 걷게 되는 장정들의 정신적(精神的) 지도의 중차대함을 절감”했기 때문이었다.<sup>163)</sup>

각 부대장들이 개신교 신앙 실천들을 부대에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해병대 도서부대”의 부대장 “김용국 중령은 참모회의시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규례를 만들고 이런 예배의식의 존엄성을 강조하였다.”<sup>164)</sup> 김용국 중령이 개신교인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기독교공보》의 기사에 따르면, “各行事[각행사]에 各集會[각집회]에 기도로서始作[시작]되며 敎會規則[교회규칙]대로 오직 한 분 하나님께 敬拜[경배]하 ... 는 恩惠[은혜]의 때”였다.<sup>165)</sup> 이는 당시 군대의 행사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사례들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1953년 2월 28일 백령도 해병대 김두참 부대장(대령)은 백령도에 고아원을 설립하고 개원식을 할 때에 “一, 개회사 一, 애국가 봉창 一, 기도 김경수 군목 一, 경과보고 부원장 김문선 장로 一, 축사 부대장 미해병사령관 미육군부

161) “第二軍團信仰으로武裝,” 《기독교공보》, 1953년 7월 6일, 1.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9D%BC%EA%B6%8C>

(2018년 2월 28일 검색했음)

정일권의 종교에 대해 확인하라.

162) “五一〇三部隊禮拜堂獻堂式,” 《기독교공보》, 1953년 10월 26일, 2.

163) “壯丁精神訓練敎會堂又設立,” 《기독교공보》, 1952년 3월 10일, 1.

164) “祈禱하는參謀會議,” 《기독교공보》, 1952년 11월 3일, 2.

165) “諸般儀式敎會規例대로,” 《기독교공보》, 1952년 4월 14일, 1.



대장 면장교회대표 一, 찬양 교회성가대 一, 만세삼창 부부대장 이봉출 소령”으로 진행되었다.<sup>166)</sup> 7개의 식순에서 분명한 개신교 요소는 기도와 찬양 2개이며, 일반 식순에 참여한 개신교인 2명을 포함하면 총 4이었다.

부대장들 중에 개신교로 개종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부경비사령부 이형석 사령관(중장)은 1953년 5월 30일(부임 날짜) 박 군목이 부임한 후 개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교회 출석을 제일 먼저 하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sup>167)</sup> 한관홍 대령은 부친이 장로, 모친은 집사로 개신교인이었으나 장성한 후에는 교회를 멀리했다. 그러나 전쟁 중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 중에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하였고, 1953년 8월 28일부터 교회를 나갔다.<sup>168)</sup> 위에서 살펴본 세례자들 중에 장교 및 부사관들도 많이 있었다. 전쟁 기간 중에 개신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지휘관을 포함한 군 간부들이 신앙전력화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본인들도 전쟁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절대자를 찾았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군목들은 초창기에는 의구심 속에서 활동했지만, 이후 부대장들을 포함하여 군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sup>169)</sup> 1952년

166) “白령에孤兒院誕生,” 《기독교보》, 1953년 3월 23일, 2. 하나의 기사는 참고할만하다. 나상행, “군인교회의 재미있는 부흥,” 《감리회보》, 1953년 7월, 18. “一九五二년 十二月에 감리교회 군목 김창선 군목은 육해공 三군의 기간장병의 행정요원을 양성하는 고급부관학교에 군인교회를 창설하여 활동 중에 종교교육과 졸업식 때는 군목의 기도로서 개회를 시작하여 三군 장병들에게 종교적 감화를 크게 주고 있다 한다.” 고급부관학교장이 공식 행사의 기도를 주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휘관의 의지 없이 진행되었을 리는 없다.

167) “中部警備司令部軍人教會大盛況,” 《기독교보》, 1953년 7월 20일, 1.

168) “北漢山部隊長韓官興大領歸信,” 《기독교보》, 1953년 11월 30일, 2.

169) “將兵家族의生活까지돌아보는信仰武人金聖恩大領,” 《기독교보》, 1953년 7월 20일, 1. “軍목制度[군목제도]가 實施[실시]된 以後[이후] 海兵隊[해병대]에서 活躍[활약]하는 軍[군]목들의 배後[후]에는 戰線[전선]이나 後方[후방]을 莫[막]론하고 그 指揮[지휘]관 所屬長[소속장]들의 積極的[적극적]인 協助[협조]가 있어 信[신]앙의 部隊[부대]로 育成[육성]되어 나간다는 既報[기보]한 바 있거니와”

10월 27일에는 국방부관계자들과 교회 인사들, 국회의원이 모여 군목 문제와 상이군인 문제를 다루었다. 개신교가 상이군인 원조에 힘을 쓰며, 군목은 영관급으로 임관시키기로 합의하였다.<sup>170)</sup> 육군제7839부대 박태경 군목이 “예하 단위부대순회 대전도강연회를 실시 중에 있다고 하는데 특히 동부대 정훈과의 적극적 후원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다”<sup>171)</sup> 1953년에 해병대사령부 군목실에서 간행한 80여 쪽의 『기독교신앙문답』은 군 예산으로 출간된 것으로 15,000권, 30만환이 들었다.<sup>172)</sup> 영관급으로 군목 임관, 정훈과의 전도강연 후원, 개신교 신앙서적을 군대에 보급하기 위한 군 예산 집행 등의 사례들은 국가의 군목 및 개신교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며, 초창기의 의심과 비교할 때, 개신교의 신앙전력화의 효과가 국가에 의해 인정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나. 군인들의 개신교 선택: 개신교 부대의 존재와 그 이유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6월 26일자 《동아일보》에서 공산주의자들과 결사항쟁을 고무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 때 그는 “自由[자유]를 위하여 싸워서 貴重[귀중]한 生命[생명]까지 犧牲[희생]한 軍人[군인]들의 信仰[신앙]”이라고 표현하였다.<sup>173)</sup> 일반적으로 신앙이란 단어가 종교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승만 개인의 종교가 개신교였다는 점에서 이승만의 신앙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당시 군인들의 상당수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음과 종교를 중심으로 자유를 위한 전쟁에 나섰음을 추정케 한다. 당시 대통령의 눈에 보기에는, 군대의 종교 비

170) “發展途上の軍牧制度,” 《기독교공보》, 1952년 11월 3일, 1.

171) “七八三九部隊軍牧大傳道運動展開,” 《기독교공보》, 1953년 8월 31일, 1.

172) “海兵傳道文庫,” 《기독교공보》, 1953년 10월 26일, 2.

173) “民主陣營의 勝利祈願 鴨綠國境에 太極旗 휘날리자,” 《동아일보》, 1951년 6월 26일, 2.

율은 높았으며 종교와 정신전력도 연관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확인해야 할 것은 당시 군인들의 종교 선택 비율이 어떠한 것인지 여부이다. 만일 개신교가 높게 나온다면, 개신교를 통한 정신전력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전쟁 기간에 개신교를 선택한 군인들은 많았다. 스완손 목사는 1952년 9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2달간 국군 부흥운동을 진행하기로 예정하였다.<sup>174)</sup> 그러나 실제로는 1952년 10월 15일에 수영비행장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동년 동월 23일에 OO보충대대에서 가진 2회의 집회 결과 1,800명이 개신교를 받아들였고, OO육군병원에서 가진 2회의 집회 결과 400명이 개신교인이 되었고, 26일 주일 육군본부군인교회에서 가진 예배를 통해서도 다수의 장병들이 개신교인이 되기를 희망하였다.<sup>175)</sup> 그가 1952년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대구, 영천, 경주, 밀양의 국군 각 부대들에서 한 25회의 전도 강연에 각 부대장들은 본인들도 참여할 뿐 아니라 전 장병들 다 참여케 하였다. 이때 전 장병의 90%가 개신교를 받아들였고, 지휘관들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부산, 대전, 광주, 군산, 청주에서도 계속될 예정이었다.<sup>176)</sup> 앞서 2. 나. “군목과 신앙전력: 설교, 예배, 세례”에서 군인들의 개신교 선택에 대한 많은 사례들을 설명하였다. 이 외에 하나의 기사를 살펴보자. 1952년 7월 13일에 백령도에 해병대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매일같이 군목실 문을 두드리는 장병의 수는 늘어가며 고달픈 동포들의 눈물을 씻기에 전 군목은 여념이 없다 한다.”<sup>177)</sup>

1954년 장로교 39회 총회에 보고된 기록에 따르면, 국군의 20%가 개신교를 선택했다.<sup>178)</sup> 해군의 경우 1953년 5월 기준 전 장병의 15%

174) “國軍의 信仰復興爲해,” 《기독교공보》, 1952년 9월 15일, 1.

175) “國軍將兵에 傳道開始,” 《기독교공보》, 1952년 11월 3일, 1.

176) “國軍傳道史上劃期的,” 《기독교공보》, 1952년 11월 17일, 1.

177) “해병대도서부대에 군인교회,” 《기독교공보》, 1952년 8월 11일, 2.

가 개신교를 선택하였다. 해군에 군목은 총 26명이 배속되었고, 장교들 중 개신교 신자는 475명, 사병은 2,325명이었다.<sup>179)</sup> 1953년 4월 29일에 종교를 가진 인구는 55,151명이었고, 개신교는 28,652명, 유교는 8,908명, 천주교는 5,694명, 불교는 5,055명, 기타는 6,842명이었다.<sup>180)</sup> 1954년 4월 종교를 가진 군인은 총 74,751명이었는데, 이 중 개신교가 33,853명이었고, 유교가 15,891명, 불교가 8,863명, 천주교가 6,989명이었다.<sup>181)</sup> 참고로 이 당시 개신교 인구가 500,198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약 2.5%였다.<sup>182)</sup> 그런데 종교를 가진 군인의 50% 이상이 개신교였다. 휴전 후에 이 비율은 타종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약간 줄어들었다.

군대 내 개신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믿음의 상승부대” 또는 “신앙의 부대” 등으로 묘사되는 개신교인 비율이 높은 부대들도 생겼다. 해병대 5080부대, 해병대제일전투단, 해병대 서해부대, 육군제7296부대가 여기에 해당했다. 특별히 해병대 서해부대는 류 군목(대위)에게 소대장과 중대장이 성경공부를 하고, 부대원들은 과업 후 중대장과 소대장에게 성경을 배웠다. 매주 병사들의 생일 때 생일축하예배를 진행했다. 이 부대의 부대장과 부부대장이 신앙의 부대가 되기를 기도하며 매일 아침마다 마이크를 경건 예배를 드리며, 참모 회의 때는 군목의 기도로 시작하였다.<sup>183)</sup>

178) 沈漢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록』 (서울: 韓國教會史文獻研究院, 1993), 288.

179) “飛躍하는海軍軍牧業務,” 《기독교공보》, 1953년 5월 23일, 1.

180) 육군본부, 『육군군중사』 (1975), 42. 윤선자, “6·25 한국전쟁과 군중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14 (2001. 2): 165. 재인용.

18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9회 총회회사록》 (1953), 42. 허명섭, 『해방 이후 한국교회의 재형성 1945-1960』, 307. 재인용.

182)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I권,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6), 116.

183) “믿음의위문품,” 《기독교공보》, 1952년 3월 31일, 2. “해병대 五〇八〇 부대는 믿음의 상승부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韓美海兵合同禮拜,” 《기독교공보》, 1953년 11월 30일, 2. “信仰[신앙]의 部隊[부대]로써 有名[유명]하고 모든 戰鬪[전투]에 必勝[필승]을 確信[확신]하는 勇敢無雙[용감무쌍]한 우리 海兵隊 第一

그렇다면, 전쟁 기간 높은 개신교인의 증가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군목의 활동, 신앙군인들의 활동이 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답을 찾는다면, 전쟁 속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군인들에게 개신교의 하나님이 하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었을 수 있다. 육군제7296부대 00연대 소속 이종갑 소위는 개신교를 받아들이면서 쓴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신앙의 길에서 살고 죽는다는 확고부동한 생활이 갈망되어 새출발을 하게 되었다 ... 고한다”<sup>184)</sup> “신앙의 길에서 살고 죽는다는” 표현 속에서 전쟁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죽음을 고민했던 한 장교의 모습을 그릴 수 있고, 신앙을 받아들여 죽음의 두려움을 신앙 안에서 승화시키려는 한 군인의 내적 심정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전쟁 중 포병장교로 활동했던 조주태는 “전장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생사의 기로에서 급할 때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라고 하며 죽음 앞에서 개신교 신앙을 찾는 사람들을 소개하였다.<sup>185)</sup>

박창원의 사례는 죽음 앞에서 개신교 신앙으로 귀의하는 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독실한 개신교인 어머니에게서 자라났지만, 신앙을 멀

戰鬪團軍牧室[해병대 제일전투단군목실] “常勝信仰의部隊誕生,” 《기독교공보》, 1952년 2월 18일, 2. “서부전선 00지구에서 싸우는 [믿음의 부대]란 칭호를 받는 해병대에 00부대가 있다” 이것은 서해부대이다. “武人信仰美談또하나,” 《기독교공보》, 1953년 9월 21일, 1; “信仰을激勵하는兩部隊長 西海部隊信仰部隊를指向,” 《기독교공보》, 1953년 8월 24일, 2; “信仰으로垂範하는—信仰武人朴慶烈少領,” 《기독교공보》, 1953년 11월 9일, 2.을 참고하라. “一선에서한미합동예배,” 《기독교공보》, 1952년 5월 12일, 2. “대포소리 은은한 최전선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미합동예배를 성대하게 지킨 믿음의 상승부대가 있다. 즉 육군제七二九六부대는”

184) “구세주차준장교,” 《기독교공보》, 1952년 5월 12일, 2.

185) 조주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비역 장군 17인의 신앙수기 모음집』, 178.

리하였다. 그러던 중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그는 “사단 인사참모 겸 부관으로 사창리 전투에 참전했”고, 이 전투에서 적의 포위 속에서 5일 동안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때 그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평생 동안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라고 외쳤다. 이후 어둠 속에서 인계철선을 건드려서 그를 포함하여 24명 중 살아남은 7명에게 총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인간이 간사해서 살 길이 생기니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라고 하였다.<sup>186)</sup> 죽음의 공포가 그로 하여금 다시 신앙을 갖게 했던 것이다.

백선엽, 김일환의 사례도 유사하다. 1950년 낙동강 방어선에서 1사단 11연대를 지휘하던 백선엽은 다부동 전투에서 11연대 1대대가 물러나는 것을 목격했다. 이것은 천평동에서 싸우던 미 27연대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었기에, 백선엽은 부하들을 독려하기 위해 직접 전장에 갔다. 이러한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그는 먼저 어머니를 떠올렸고, 이후 교회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번의 위기를 구해주신다면 앞으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sup>187)</sup> 김일환은 어려서 만주에서 거하면서 초등학교 3, 4학년 시절 교회를 다녔다. 그러나 5학년 때 일본의 만주 진입 이후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다. 해방 후 그는 국방경비대에서 근무하였고, 1951년 6·25 전쟁 중에 소장으로 진급하였고, 곧 이어 국방 차관에 임명되었다. 그의 나이 37살이었다. 이 때 그는 “한 없이 부족한 인간 세계의 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감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힘들다고 느껴, 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회개하였으며, 임명되던 그 주일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sup>188)</sup> 김일환

186) 박창원,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그 열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비역 장군 17인의 신앙수기 모음집』, 72-74.

187) 백선엽, 『백선엽의 6.25전쟁 징비록 제2권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 (서울: 책밭, 2016), 286-288.

188) 김일환, 『김일환 회고록』 (서울: 주식회사 흥성사, 2015), 21-22.

의 경우 전선에서의 결신은 아니었지만, 전쟁 중 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신앙을 찾았다는 점은 죽음의 위협에서 신앙을 찾았던 것과 유사하다.

#### 다. 군인들의 간증과 신문 기사의 평가<sup>189)</sup>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한국에서 태어난 세 명의 미국 선교사가 전투에 참여하였다. 바로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빌 쇼(Bill Shaw), 짐 램프(Jim Lampe)였다. 이 중 서울탈환의 과정에서 빌 쇼가 속했던 미군 중대는 흥대동으로 향했다. 이때 북한군은 잠복하고 있다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가했다. 총격전이 벌어졌고, 빌 쇼는 “한국 민간인들을 구하려다가 전사했다.”<sup>190)</sup>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한 미국 선교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보여준 행동은 개신교 신앙이 전쟁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한 요소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개신교 신앙을 가진 군인들이 전선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살펴보고, 개신교와 정신전력 사이의 관계를 고찰해 보도록 할 것이다.

개신교 신문에 개신교 군인들의 편지나 단편의 글들을 직접 소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것은 전투의 한 복판에서 썼다는 점에서 당시 군인들의 심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개신교 사병 안두호는 전쟁 중 쫓가리 글을 수첩에 적어두었다. 이 글에는 전쟁 중에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후방의 국민들에 대한 분노가 나타났다.<sup>191)</sup> 그러나 표재명

189) 여기서 소개할 자료들과 그에 따른 해석은 군목 및 신앙군인만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도 있다. 그럼에도 개신교를 통한 정신전력이라는 차원에서 소개하겠다.

190) H. G. Underwood, 『한국전쟁, 혁명 그리고 평화』, 주장돈 역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170-174.

191) “진전습유,” 《기독교공보》, 1952년 6월 23일, 2. “산천조목도 잠들고 눈보라 바람도 다 잠든 곳에 타향 외로이 전초(前哨)를 서니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을 스

소위가 1952년 10월 13일에 자신의 형인 표재환 장로에게 보낸 편지에는 개신교 신앙과 가족의 안부가 주를 이루었다.<sup>192)</sup>

이 외의 군인들이 쓴 편지나 단편 글은 개신교 신문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신교 군인들이 전시에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는지를 살펴보면, 개신교와 신앙전력을 이해할 수 있다.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박조준은 월남하여 국국을 지병단에 입대했다. 6·25전쟁 때인지, 아니면 그 전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이 부대는 “쌀을 구하려고 황해도 연백 지역에 상륙했다가 인민군과 마주쳐 120명 중 100명이 전사했다.” 그리고 박조준은 하나님께 살려만 준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sup>193)</sup> 박조준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음을 알 수 있다. 박세직도 학도병으로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다. 그러면서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얻은 결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었다.”<sup>194)</sup> 조주태는 개신교인으로서 6·25 전쟁이 발발할 당시 육군포병학교에서 장교로 복무하였다. 그리고 전쟁 초기에 적의 전차에 무기력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에 임했다.<sup>195)</sup>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

---

치어 죄없는 보름달만 노려 보노라 봄이라 진달래도 다 피었는데 어찌도 무궁화는 안 피려는가 봄이라 쌓인 눈도 다 녹았는데 삼천만 가슴 속의 얼음은 언제나 녹나 마카오 양복에 베르베\*르 치마를 입은 남녀들아 명심하라 이시각 이순간도 일선에선 전우들이 쓰러지는 걸 — 총구(銃口)의 불꽃피는 일선에서 부모도 모르게 가는 그들이 너희들의 방탕을 안다하면 분노와 불안 속에 눈을 못 감으리”

192) “돌벼개배던 야곱과 같이,” 《기독교보》, 1952년 11월 10일, 2. “그리고 기도 성경 말씀 傳[전]하기 이 세가지는 CHRISTIAN LIHE[sic]에 있어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될 것임을 뚜렷이 깨닫습니다. ... 一線[일선]에 오니 주님이 더욱 가까이 계심을 느끼웁니다.” 이 외에 가족에 대한 안부도 나온다.

193) 박래찬, “[역경의 열매] 박조준 <3> 인민군과 전투 중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헌신,” 《국민일보》, 2016년 11월 1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35929> (2018년 5월 3일 검색했음)

194) 박세직,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비역 장군 17인의 신앙 수기 모음집』, 65-66.



이 전쟁에서 임무를 다하고 살아남도록 지켜주시옵소서”였다.<sup>196)</sup> 병사로 전쟁에 참여했던 이지익도 개신교인으로 “내일 아니 끝없는 이 전쟁 속에서 오직 나의 생명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싸웠다.<sup>197)</sup>

보다 극적인 하나님 의존의 장면은 김소영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 때 그는 전우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갔다.

빗발치는 총탄 앞에 맥없이 쓰러지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슬퍼 할 여유가 없었다. ... 나무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드렸다. 한참만에 눈을 떠보니 몇몇 대원들도 기도를 하고 있었다. 금방 10여명이 모였다. 우리는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감격적인 기도회를 가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통성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어떤 전우들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기도를 마치고 낮을 때에는 마음 속에[sic] 가득했던 공포의 그림자가 말끔하게 씻겨져[sic] 있었다.<sup>198)</sup>

전쟁 당시 성경책과 찬송가를 소지하고 전쟁에 나선 신앙군인들도 있었다. 강용석(일등병)은 중공군의 참전(1950년 10월 25일)으로 유엔군이 후퇴할 때 사리원에서 국군 전차 공격대에 입대하여 동부전선에서 싸웠다. 1951년 11월 하순경에 그는 그의 왼쪽 가슴에 적탄을 맞아 쓰러졌으나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살 수 있었다.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왼쪽 포켓에 찬송가를 넣고 다녔던 까닭이다. 그는 전쟁 동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찬송가를 불렀는데, 이런 계기로 그의 목숨이 살 수 있었던 것이다.<sup>199)</sup> 박 하사도 김일성 고지에서 전투할 때 왼편 가슴에 성경

195) 조주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비역 장군 17인의 신앙수기 모음집』, 162-166, 177.

196) Ibid., 178.

197) 이지익, 『이지익 장로 체험수기 하나님의 손 안에』 (서울: 창조문화사, 2010), 232.

198) 김소영, “찬송가 통일 작업 큰 보람 느껴,” 『역경의 열매너와 함께 하리라』, 조용우 편 (서울: 국민일보 출판국, 1991), 61-62.

199) “敵彈과 나의讚頌歌,” 《기독교공보》, 1952년 11월 10일, 2.

을 넣고 싸웠다. 이 때 그는 왼팔은 끊어졌지만, 왼편에 넣어둔 성경책 덕분에 총탄이 가슴을 관통하지 않을 수 있었다.<sup>200)</sup> 월남 개신교인인 신태영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6·25 전쟁에서 싸웠고, 이 때 주머니에 항상 성경책을 넣고 다녔다.<sup>201)</sup> 가슴 속에 넣은 찬송가와 성경책은 이들이 전선에서 신앙을 의지하며 싸웠음을 알게 해준다.

이 외에 전쟁의 상황에서도 신앙을 중시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제주도에서 징집된 한 개신교 군인은 무속신앙을 섬기던 그의 부모(김태용 부부)에게 전도 편지를 자주 보냈다. 이후 그가 전쟁에서 죽자 그의 부모는 집안의 무속신앙을 제거하고 주초를 끊고 교회에 전적으로 봉사하는 개신교인이 되었다.<sup>202)</sup> 이러한 김태용 부부의 회심은 아들의 편지에 나타난 전도의 간절함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선을 넘는 전쟁 속에서도 편지에 전도문을 쓴 한 개신교 청년의 모습은 그가 전쟁의 두려움보다 부모의 전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짐작하게 하며, 신앙을 중심으로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전투에 나섰을 것도 추정케 한다. 진해에 있는 해군교회는 1953년 1월 4일에 2회 유년주일학교 졸업식을 거행하여 2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유년주일학교의 부장과 선생이 다 해군사병이었다는 사실이 있었다.<sup>203)</sup> 본인들이 군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교회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군인들의 모습은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군복무는 떼어낼 수 없는 것임과 신앙이 그들의 군 생활을 유지하는 힘이였음을 추정케 한다.

상이군인들은 군병원에서 치료받고 다시 전선에 나가는 경우와 장애를 가지고 제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상이군인들에 대한 신앙전력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 부상당한 군인들이 군인교회에

200) 나사행, “한국전쟁은 군복을 불렀다,” 167.

201) 신태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하며 기도로 마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비역 장군 17인의 신앙수기 모음집』, 88.

202) “一線아들傳道편지에,” 《기독교공보》, 1952년 11월 17일, 2.

203) “鎭海海軍軍人教會에서,” 《기독교공보》, 1953년 1월 12일, 2.

서 타자를 위한 헌금을 하거나 교회 건축을 하는 등 이타적인 삶을 보여주었다. 63육군병원 군인교회의 상이군인들이 전재민을 위한 헌금을 하였다.<sup>204)</sup> 1953년 1-2월 즈음에 동래31육군정양원에 59평의 군인교회가 착공하자, 정양원에서 치료 받고 있던 김홍소, 최도\*는 일개월분 급여를, 신옥우는 이개월분 급여를 건축 헌금하였다.<sup>205)</sup> 1952년 10월 25일에 해군제3병원 군인교회가 30평 규모로 건축된 것에는 20여명의 상이군인의 참여가 있었다.<sup>206)</sup>

또한 독실한 개신교인들이 상이군인들 가운데 나타났으며,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제5육군병원 2병동 군인교회에는 13명이 신약을 3번 읽었고, 11명이 2번, 33명이 1번 읽었다. 이들은 성경 구매를 위해 배급용 담배를 팔았다.<sup>207)</sup> 1953년 4월 12일 오후 2시에 부산지구 군인교회 연합주최 하에 북한신도연합예배를 시작으로 각 교회를 순회하며 상이군인신앙간증회가 열리기로 하였다.<sup>208)</sup> 상이군인들이 성경을 읽고 간증을 한다는 것은 개신교를 통해 부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김양선의 표현은 개신교와 상이군인의 신앙전력화를 잘 설명해준다.

얼마 후에 共産軍[공산군]의 南侵[남침]으로 六二五사변이 일어나 多數[다수]의 國軍將兵[국군장병]들이 戰線[전선]에서 戰死[전사] 或[혹]은 重傷[중상]을 입어 後方病院[후방병원]으로 移送[이송]되었다. 死[사]의 罅[틈]에서 떠는 傷痍軍人[상이군인]들의 가슴 속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精神武裝[정신무장]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 그리하여 저들은 親切[친절]한 加護[加護]의 손을 기다리는 同時[동시]에 精神的[정신적]인 慰安[위안]과 更生[갱생]의 希望[희망]을 渴求[갈구]하고 있었다. 이때에 敎會[교회]는 저들의 要求[요구]에 應答[응답]할 者[자]는 오직 韓國敎會[한국교회] 라고 自負[자부]하고 많은 男女敎役者[남녀교

204) “굶주리는 同胞爲해 傷兵赤誠의 獻金,” 《기독교보》, 1952년 12월 1일, 1.

205) “東萊에 軍人敎會,” 《기독교보》, 1953년 2월 2일, 2.

206) “제주도에 해군교회,” 《기독교보》, 1952년 11월 24일, 2.

207) “傷軍들이 聖經熱讀,” 《기독교보》, 1953년 12월 7일, 1.

208) “傷痍軍人信仰干證會,” 《기독교보》, 1953년 4월 6일, 1.

역사들이 陸, 海, 空軍 病院(육, 해, 공군 병원)으로 들어가 不撤晝夜(불철주야)로 奉仕(봉사)하며 그리스도의 犧牲奉仕(희생봉사)의 精神(정신)을 저들에게 넣어주었다. 저들은 정말 다시 살아났다.[sic] 精神(정신)에서 다시 살아났다.[sic] 많은 傷痍軍人(상이군인)들이 다시 鉞(창)을 잡고 戰線(전선)으로 나아갔다. 그들이야말로 모든 黜(집)에 있어 模範軍人(모범군인)이었고 또는 死(사)를 두려워 하지[sic] 않는 天下無敵(천하무적)의 強軍(강군)이었다.<sup>209)</sup>

이 외에 「기독교보」에는 개신교와 정신전력의 연관성을 지지해주는 기사가 있다. “령化運動(화운동)은 大氣(대기)\*을 올리는 중 特別(특별)히 여기는 三八以北(삼팔이북) 땅이니 만치 九月山(구월산)을 눈 앞에 바라보며 感慨(감개)도 無量(무량)하게 失地回復(실지회복)을 祈願(기원)하는 兵士(병사)들의 士氣(사기)는 信仰(신앙)의 불과 함께 타오르고 있다 하며”<sup>210)</sup> 당시 개신교 신문은 개신교 신앙과 군 정신전력을 연관시켜 보도하였다. 물론 개신교 신문이라는 점에서 공정한 보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개신교 언론은 당시 개신교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를 반영한다. 그렇다면 이 기사는 적어도 당시 주류 개신교가 군인의 정신전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읽을 수 있는 한 단면은 된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것들을 종합하면, 위 기사의 내용을 전혀 신빙성 없다고 말할 수 없다.

## 4. 결 론

본 연구는 6·25 전쟁 당시 군목과 신앙군인을 중심으로 개신교와 군대의 정신전력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시작되었다.

209) 金良善, 『韓國基督教解放十四年』 (서울: 大韓예수교長老會總會 宗教教育部, 1956), 137-138.

210) “海軍軍牧活動大活潑,” 《기독교보》, 1952년 10월 6일, 1.

이를 위해 먼저 군목제도의 설립과 활동을 정리해보았다. 군목은 교계의 요청과 이승만 대통령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 속에 교계에서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1950년 12월에 시행되었다. 1952년 6월 16일까지 무보수 촉탁으로 활동하였고, 이후 유급문관신분으로 임관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적은 보수로 인해 교회의 지원을 계속 받았다. 개신교와 천주교 성직자가 군목에 임관했고, 개신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군목들은 전선도 순회하였고, 그러던 중에 사고로 순직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군목들의 신앙전력화 활동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첫째로 군목들 중심으로 행해진 설교, 교회 설립, 세례는 군목들의 신앙전력화의 영향력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었다. 개신교 신문을 분석해본 결과 군목들이 군인들에게 하는 일반 설교의 절반 이상은 신앙전력화와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거행하였고, 예배와 특별행사(부흥회 등)에는 다수의 군인들이 회집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결신, 학습, 세례를 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로 1년 7개월 만에 군인 신자율은 군목 초기 3%에서 10%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상이군인들의 개신교 선택은 더 두드러졌다.

둘째로 군목들은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인식하고 전선의 군인들을 위문하였고, 위문 및 위문품의 중요성을 사회에 환기시켰다. 그리하여 실제로 군목실로 들어오는 사회의 위문품들이 있었다. 또한 부상병들에 대한 관심은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의 사기와도 연관이 있었다는 점에서 군목들이 상이군인을 방문하고, 장애를 가진 상이군인들의 사회재활을 위한 직업교도소를 세운 것은 정신전력에 의미 있는 일이었다.

당시 군내 내에 있던 신앙군인들의 신앙 전파활동은 개신교 사생관에 기초한 정신전력향상과 군목과의 접촉을 위한 매개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독려했고, 신앙

전력화의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자는 군목의 신앙전력화를 긍정하는 2개의 글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신교와 군 정신전력의 관계성 여부를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먼저는 지휘관들의 개신교에 대한 긍정이다. 초기 지휘관들은 군목의 효과를 의심하였지만, 이후 군목들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참모로 전선에 동행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그들은 개신교 교회 설립 시나 행사 때 참여하여 축사를 하였고, 교회 설립과 행사에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군목 파송에 대해 한국 교계에 감사장을 보냈고, 교회 설립을 주도한 지휘관들도 종종 있었다. 군대의 행사에 개신교의 기도와 예배를 도입하는 사례들도 있었으며, 지휘관들이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러한 많은 사례들은 전쟁에서 개신교의 정신전력의 효과를 지휘관들이 인정하였음을 내포한다.

전쟁기간 군인들의 개신교 선택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도 개신교의 정신전력의 효과를 입증하는 예이다. 스완손 목사는 방한하여 군 집회를 열었는데, 이 때 25회의 집회에서 부대원의 90%가 개신교를 받아들였다. 당시 개신교는 한국에서 2.5%에 불과했지만, 군대에서는 종교를 가진 군인의 50%가 개신교인이었고, 휴전 후에도 50%에 육박하였다. 개신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개신교 비율이 높은 부대들(해병대 5080부대, 해병대제일전투단, 해병대서해부대, 육군제7296부대)도 나타났다. 이종갑, 박창원, 백선엽, 김일환의 사례를 보면, 다수의 군인들이 개신교를 선택한 것은 죽음과 어려움의 위기 속에서 절대자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과였을 수 있다.

개신교인들이 전쟁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개신교와 정신전력의 상관관계를 지지해준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기도하며 싸웠던 군인들, 전쟁의 복판에서 부모에게 전도의 편지를 쓴 군인, 형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쓴 표재명 소위, 찬송을 부르며 전투에 임한 강용석과 성경을 의지한 박 하사 등 신앙 군인들에게 개신교는 전쟁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 준 중요 요소였다. 개신교를 받아들인 상이군인들에게서 목격된 이타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은 개신교의 신앙전력화의 효과를 잘 보여주었다. 개신교 신문이 서술한 신앙전력화에 대한 글도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아무도 접근하지 않은 6·25 전쟁의 시기에 군대를 중심으로 개신교의 신앙전력화를 접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여기서 연구자가 소개하고 정리한 정신전력에 대한 자료들이 이후의 정신전력의 연구에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반면 반세기 전의 일들의 정신전력을 수치화 하는 것의 어려움 속에 개신교의 정신전력을 추정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천주교를 통한 정신전력의 효과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종교와 상관없이 거국적으로 국군의 정신전력에 기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것들을 다 다루지 않았다. 이것들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하나의 숙제로 남긴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분명한 의의와 한계를 가진다.

반세기 이상의 휴전은 종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과의 전쟁은 누구도 바라지 않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수 있다. 본 연구가 전쟁이 발발할 시 군종장교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군의 정신전력을 고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고민을 던져주었다면, 그리고 군 지휘관들에게 종교가 가지는 정신전력의 힘을 고민하게 했다면, 이 논문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 생각한다.

(원고투고일 : 2018. 4. 6, 심사수정일 : 2018. 5. 2, 게재확정일 : 2018. 5. 14)

주제어 : 정신전력, 개신교, 군목, 신앙군인, 6·25 전쟁

## <참 고 문 헌>

- 강인철. 『종교와 군대』. 서울: 현실문화연구, 2017.
- 군복음화후원회 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비역 장군 17인의 신앙수기 모음집』. 서울: 쿰란출판사, 1993.
- 김기태. “한국 전쟁과 군선교.” 『선교와 신학』 26 (2010. 8): 41-69.  
<http://uci.or.kr/G704-000811.2010..26.009>
-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 \_\_\_\_\_. “전쟁명명의 정치학 “아시아·태평양전쟁”과 “6·25전쟁.”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0(2009. 2): 71-98.  
<http://uci.or.kr/G704-001329.2009.30.2.008>
- 김소영. “찬송가 통일 작업 큰 보람 느껴.” 『역경의 열매-너와 함께 하리라』. 조용우 편 서울: 국민일보 출판국, 1991.
- 金良善. 『韓國基督教解放十四年』. 서울: 大韓예수교長老會總會 宗教教育部, 1956.
- 김일환. 『김일환 회고록』. 서울: 주식회사 흥성사, 2015.
- 김병희 편저. 『한경직목사』. 서울: 규장문화사, 1982.
- 나사행. “한국전쟁은 군목을 불렀다.” 『韓國基督教宣敎100周年紀念韓國說敎大全集』. 한국설교대전집출판위원회편, 165-168.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79.
- \_\_\_\_\_. “군인교회의 재미있는 부흥.” 《감리회보》, 1953년 7월, 18.
- 박경수, 한승조. “군 부대 정신전력 비교평가를 위한 AHP 모델.”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2. 11): 192-197.
- 박보경.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한국 교회의 역할.” 『선교와 신학』 26 (2010. 8): 105-140. <http://uci.or.kr/G704-000811.2010..26.004>
- 박일, 고영건. “정신전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2012. 2): 105-124.  
<http://uci.or.kr/G704-000280.2012.25.1.005>
- 박재곤, 오영균. “정신전력이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군 조직특성과 문



- 회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2016. 9): 75-106.  
<http://uci.or.kr/G704-001669.2016.59.3.005>
- 박지옥. “한국전쟁과 부산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의 의료구호활동.” 『의사학』 19 (2010. 6): 189-208.
- 백선엽. 『백선엽의 6.25전쟁 장비록 제2권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 서울: 책발, 2016.
- \_\_\_\_\_. 『백선엽의 6.25전쟁 장비록 제3권 두려움에 맞서는 법』. 서울: 책발, 2017.
- 백창현. 『한국군목회』. 서울: 한국군목회, 2015.
- 윤선자. “6·25 한국전쟁과 군중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14 (2001. 2): 145-183.
- 이준희. “정신전력 인식 지수에 의한 전쟁승패 요인분석.” 『OUGHTOPIA』 26 (2011. 8): 97-126.  
<http://uci.or.kr/G704-SER000012878.2011.26.2.002>
- 이지익. 『이지익 장로 체험수기 하나님의 손 안에』. 서울: 창조문화사, 2010.
- 지학순. 『내가 겪은 공산주의』.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7.
- 채명신. “하나님의 가호로 사선을 뚫다.” 『역경의 열매-기적의 수수께끼』. 조용우 편, 서울: 국민일보 출판국, 1991.
- 崔承均. “軍宗活動이 將兵들의 精神戰力에 미치는 影響.”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1995.
- 沈漢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록』 (서울: 韓國教會史文獻研究院, 1993), 288.
-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I권,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6.
- 허명섭. 『해방 이후 한국교회의 재형성 1945-1960』. 경기도: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2009.
- 홍원기. 『6·25 참전 언론인들의 생생한 증언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 서울: 社團法人大韓言論人會, 2013.
- 홍은혜. 『우리들은 이 바다 위해』. 서울: 가인기획, 1990.
- Underwood, H. G. 『한국전쟁, 혁명 그리고 평화』. 주장돈 역.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Haga, Kai Yin Allison. “AN OVERLOOKED DIMENSION OF THE KOREAN WAR: The Role of Christianity and American Missionaries in the Rise of Korean Nationalism, Anti-Colonialism, and Eventual Civil War.” Phd diss., The College of William and Mary in Virginia, 2007.

《기독교공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고성식, “한국전쟁 당시 제주 98육군병원 ... 쓸쓸히 사라져 간다,”

《연합뉴스》, 2016년 6월 24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3/0200000000AKR20160623131100056.HTML?input=1195m)

[06/23/0200000000AKR20160623131100056.HTML?input=1195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3/0200000000AKR20160623131100056.HTML?input=1195m)

(2018년 3월 30일 검색했음),

박래찬, “[역경의 열매] 박조준 <3> 인민군과 전투 중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헌신,” 《국민일보》, 2016년 11월 1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35929>

(2018년 5월 3일 검색했음)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9D%BC%EA%B6%8C>

(2018년 2월 28일 검색했음)

<Abstract>

## The Spiritual Combat Power led by the Activities of the Protestant Churches in ROK Armed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 Focused on Chaplains and Protestant worshipping Soldiers

Yun, En-seok

The Main theme of the thesis is to reveal that Korean Protestantism contributed to the reinforcement for military spiritual war power of ROK armed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through the faith activities of chaplains and protestant soldiers. After the outbreak of war, the chaplains appointed by the military supreme HQ under the banner of religious principles had an another purpose that promotes spiritual war power with faith in addition to evangelical work. Their preaching would quite often relate to the strengthening of spiritual war power, they had achieved this purpose through the actions of foundation of church, and worship, baptism on soldiers. It also gave assistance to promote spirit of soldiers that they comforted the soldiers who were fighting at a battle fields and disabled veteran.

This study presumes Protestantism might contribute to military spiritual war power from three aspects. One is the commanders' change into positive attitude about chaplains and Protestantism. Another is a large percentage of solders who chose Protestantism in the war. The other is the behaviors Protestant soldiers showed in the war. Through these examples, this study can estimate that the level of the spiritual war power that Protestantism gave soldiers.

The study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literature research. Many articles on war relating to Protestantism is in Protestant newspaper. War veteran's writing can be the channel through which we understand wartime. With these materials, this study reveals the spiritual war power through Protestantism.

Key Words : spiritual war power, Protestantism, chaplain, Protestant soldiers,  
the Korean War.